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스 위 스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스위스 연방 공화국(Swiss Confederation)
면적	41,285 km ² (자료원 : 스위스 통계청, 2021 기준)
수도	베른(Bern)
민족(인종)	독일계 65%, 프랑스계 18%, 이태리계 10%, 로만계 1%, 기타 6%
언어	독일어 65%, 프랑스어 18%, 이탈리아어 12%, 로망슈어 1%, 기타 언어 4%
종교	천주교 38.2%, 개신교 26.9%, 무교 21.4%, 이슬람교 4.9%, 유대교 0.3%, 기타 9.3%
기후	온난성 기후
국가원수	기 파르물랭 (Guy Parmelin, 2021.1.1.~2021.12.31.) 이냐치오 카시스(Ignazio Cassis, 2022.1.1~2022.12.31)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3-02-11 (자료원 : 주 스위스 한국대사관, 무역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스위스 수교	1963-02-11	한국-스위스 수교	
투자보장협정	1971-04-07	투자보장협정	
정기항공운항협정	1976-11-20	정기항공운항협정	
공업소유권협정	1977-12-12	공업소유권협정	
사증면제협정	2018-06-28	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1981-04-22	이중과세방지협정	
정기항공운항협정 부속서 개정	1990-08-20	정기항공운항협정 부속서 개정	
한-스위스 항공협정	1995-06-17	한국-스위스 항공협정	
운전면허 상호인정 합의	1998-02-02	운전면허 상호인정 합의	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무역경제협력협정	1999-06-29	무역경제협력협정	
한-EFTA FTA	2005-12-15	한국-EFTA FTA	2016-09-01발효
한-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간 협력협정	2006-10-25	한국-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간 협력협정	
한-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간 협력협정 의정서	2007-10-22	한국-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간 협력협정 의정서	
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 협정	2008-05-06	한국-스위스 과학기술협력 협정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0-12-28	한국-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2-07-25발효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2014-01-20	한국-스위스 사회보장협정	2015-06-01발효
한-스위스 통화스와프 계약	2018-02-09	한국-스위스 통화스와프 계약	서명식: 2018-02-203년 만기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상호인정 협정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2020-01-24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상호인정 협정	서명식: 2019년 12월 18일
---	------------	-------------------	--------------------

한국교민 수

2,666 명 (자료원 : 주 스위스 한국대사관(2018년, 최신자료))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스위스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행 감독을 위해 창립된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e Überwachungskommission) 회원으로 매년 5~10명의 장교를 지속 파견하여 훈련을 감독하고 유엔에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20년 5월 3일의 북한군 강원도 철원군 휴전선 중부전선에 위치한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GP) 총격 발사에 관한 현지 조사를 하기도 했다.

스위스와 한국은 상호 사증 면제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한국-EFTA 자유무역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사회보장협정, 통화 스와프 협정 등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2014년 스위스 국민방문 시 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규모 확대 등 과학기술협력 강화에 합의하여 양국이 과학기술공동위를 설치하고 공동 생명과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산학 간 협력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 한국-스위스 직업교육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했다.

2018년 남북 및 북한-미국 간 정상회담이 추진될 당시,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 회담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열렸다.

(자료원: 경제외교포탈, 주 스위스 한국 대사관 등 종합)

경제

1) 최근 회담

2018년 2월 한국-스위스 대통령 정상회담

4차 혁명에 대비해 빅데이터, 보건산업,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 논의를 위한 '한국-스위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를 출범했다.

*한국-스위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 : 양국의 민관협의체로 정밀의료,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의료 주요 분야별 전문가들(한국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스위스 : SERI-EAER, 주한 스위스 대사관Novartis Korea, Roche Korea 등)로 구성되어 양국 보건의료 협력, 우수한 R&D 성과의 실용화, 스타트업 컨설팅 관련 정보들을 교류하고 있다.

2) 최근 이슈

2018년 2월 9일 한국 -스위스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2018년 2월 한국과 스위스는 100억 스위스 프랑(약 11.2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통화 스와프 : 계약 체결국끼리 특정 날짜나 기간(만기)을 정해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거래이다.

2018년 6월 5일 한국-EFTA FTA 6차 공동 위원회 개최

한국-EFTA의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의약품의 무역기술장벽(TBT)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스위스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상호인정 협정(GMP)’*을 체결했으며 해당 협정은 2020년 1월 24일 공표됐다.

* 한국-스위스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상호인정 협정(GMP) : 해당 협정은 2020년 1월 15일 발효되었으며, 국내기업은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의 GMP 평가를 면제받아 현지 실태조사, 서류 심사 소요기간이 줄어들어 현지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적용 품목으로는 임상시험용의약품(IMP), 원료의약품(API),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들이 있다.

2020년 2월 10일 한국-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R&D) 기업 모집 공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위스 Innosuisse와 협력하여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연 5억 원 수준으로 2차에 걸쳐 심사 및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 전문야를 대상으로 하되, Biotech, Renewable Energy, Digitalization, Additive Manufacturing, Smart Materials, AR을 중점 협력 분야로 지정,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료원 : 경제외교포탈, 주스위스 한국 대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

2020년 6월 5일 한국-EFTA FTA 7차 공동 위원회 개최

한국-EFTA의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FTA 정책 동향을 공유함과 동시에 주요 안전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외에 HS 코드 업데이트(기존 2012년 HS코드 → 2017년 HS코드) 및 제3국에서 온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 시 원산지 인정 합의(수출입 업체 편의)에 관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문화

아직 한류는 스위스에 정착하지 않았으나 점진적으로 인지도가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10월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인 RM이 발표한 싱글 앨범이 스위스 아이튠스 차트 1위를 기록했다. 한류는 아직 메인 스트림은 아니지만 아래 사례와 같이 조금씩 기반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취리히 시, Kpop 댄스, 노래 등을 주제로 청소년 문화행사(2020년 1월 26일)

현지 대형 유통망 Ubuy, 온라인샵 KPOP 굿즈 판매 전용 코너 개설

K팝 커버댄스 그룹 Infinite Entertainment, 2020년 4월 4일 Wetzikon에서 공연 추진(코로나19로 취소)

정부 차원의 문화원이 설치된 바가 없으나, 민간 차원에서 Swiss-Korean Cultural Association이라는 비영리 협회를 설립하여 2016년부터 클래식 음악 관련 문화 교류 행사 및 공연을 개최하였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0년 4월, 스위스 한류 커뮤니티 ‘2020 Hallyu Com-on: Swiss Hallyu Festival’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이후 업데이트 사항 없음).

(자료원 : www.skca.ch,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1.8	2.75	0.93	-2.5	
명목GDP (십억\$)	679.95	705.14	703.08	627.15	
1인당 GDP (PPP, \$)	67,139.05	69,357.49	70,989.29	81,867	
1인당 명목 GDP (\$)	80,450	82,818.11	81,993.73	86,849.46	
정부부채 (% of GDP)	42.64	40.53	38.63	48.7	
물가상승률 (%)	0.53	0.94	0.36	-0.7	
실업률 (%)	4.8	4.71	4.39	3.1	
수출액 (백만\$)	316,703	335,548	337,280	16,796.7	
수입액 (백만\$)	265,943	275,157	271,256	12,632.18	
무역수지 (백만\$)	50,760	60,391	66,024	4,164.52	-
외환 보유고 (백만\$)	767,680	744,167	804,004	832,347.77	
이자율 (%)	-0.27	-0.32	-0.35	-0.52	
환율 (자국통화)	0.99	0.98	0.99	0.97	

〈자료원 : World Bank, IMF, Swiss National Bank, 스위스경제사무국〉

경제 동향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스위스 프랑화 강세*로 2015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하락했다. 2016년에는 기저효과와 스위스 프랑화 강세 완화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내수시장의 호조로 경기가 대체적으로 호황기를 누렸다. 2019년 스위스 경제는 미국-중국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성장이 둔화됐다.

* 환율 하한(출처: 연합인포맥스): 스위스 중앙은행(SNB)이 스위스 프랑 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2011년 유로존 위기 당시 스위스프랑 가치가 두 달 동안 주요 거래 통화에 대해 20% 폭등세를 나타내자 스위스프랑이 유로화 대비 1.20프랑 아래로 떨어지

지 않도록 하한선을 제시한 것이다. 2015년 갑작스러운 최저 환율제 폐지로 스위스 프랑 가치는 급등세를 보이고 일부 글로벌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2020년 3월 이후 스위스에서도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어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산업, 증시, 노동시장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 스위스 경제 사무국(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SECO)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기준식품 및 서비스(-23.4%), 운송 및 통신(-5.1%), 서비스 수출(-4.4%), 헬스케어(-3.9%)가 전년동기대비 위축되었고 화학 및 제약(3.4%), 금융(2.3%), 공공행정(0.8%) 분야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분기 구인 수요가 전 분기 대비 27% 감소하였으며(분야별 : 서비스 -39%, 사무/행정 -35%, 건설 -18%, 기술 및 자연과학 -17%), 6월 기준 단축근무보상*을 지원받는 노동자 수는 5월 대비 약 2배 증가한 37.1만 명에 달했다. 9월 스위스 연방 경제 사무국 SECO는 코로나19로 2020년 실업자가 전년대기 5만 명 증가했고, 8월 말까지 단축근무보상제도로 67억 프랑을 지출했다고 발표했다.

* 단축근무보상: 직원 단축근무에 따른 임금 손실 보조 지원금으로 실업자 발생 방지 목적으로 운영

스위스 연방 경제 사무국은 20년 12월 15일, 코로나19 2차 대확산과 그에 따른 조치로 2020/2021년 경제 회복속도가 늦춰질 것이나, 경제 불황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2020년 GDP 성장률은 -2.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금융위기로 피해를 입었던 2009년의 -2.1%보다 낮은 수치이다. 서비스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고 소비지수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조업과 수출은 그에 반해 금융 위기 때 영향보다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망

경제전망	2020년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에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이며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사망자 수가 감소하자 연방정부는 락다운 규제를 예상보다 빠르게 철회하였으며, 이로 민간소비가 촉진되어 서비스 부문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 이로 인해 2021년 6월, 연방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지만, 하계휴가철부터 델타변이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2021년 9월, 스위스 경제 사무국은 2021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2%로 발표하였다. 2021년 6월에 전망한 3.6%보다 0.4%p 감소한 수치이다. 다시 증가하는 확진자수를 통제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실내시설 출입시 코로나19 증명서 의무제출화 등 신규 규제를 도입하였는데, 이 조치의 결과로 소비가 연중 예상보다는 다소 억눌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기저효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실업을 또한 지속 감소하여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의 불확실성과 함께 위험요소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스위스경제사무국은 강조했다.
--------------------	---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6,218,670,896
2	미국	37,185,244,566
3	중화인민공화국	24,865,490,426
4	인도	20,213,065,226
5	프랑스	17,520,123,594
6	영국	16,970,437,260
7	홍콩	16,028,605,370
8	이탈리아	15,989,715,596
9	오스트리아	8,219,238,463
10	일본	7,684,377,372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8,367,346,286
2	미국	41,599,868,253
3	중화인민공화국	30,762,288,534
4	프랑스	20,404,880,141
5	인도	18,571,813,613
6	이탈리아	16,703,725,537
7	홍콩	16,063,502,453
8	영국	10,701,678,160
9	네덜란드	8,282,789,429

10	일본	8,078,432,157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8,805,145,963
2	미국	44,329,735,427
3	영국	28,366,625,422
4	중화인민공화국	21,882,519,321
5	프랑스	20,096,010,800
6	인도	18,763,201,994
7	이탈리아	16,375,931,486
8	홍콩	9,978,160,365
9	일본	8,238,487,201
10	스페인	7,941,750,824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73,328,573,334
2	독일	49,403,290,173
3	중화인민공화국	17,575,593,011
4	영국	16,809,735,478
5	프랑스	16,768,288,079
6	이탈리아	15,477,334,868
7	인도	12,034,735,701
8	오스트리아	8,220,628,286
9	스페인	8,134,589,280
10	일본	7,550,191,416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5,399,733,203
2	미국	21,440,217,866
3	이탈리아	21,029,380,327
4	영국	19,404,275,860
5	프랑스	17,396,859,138
6	중화인민공화국	13,320,204,716
7	아랍에미리트	10,040,699,108
8	홍콩	9,382,770,499
9	오스트리아	7,998,211,929
10	아일랜드	7,729,235,849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8,035,834,473
2	영국	26,603,081,131
3	이탈리아	22,235,598,704
4	미국	21,380,041,689
5	프랑스	20,123,081,584
6	중화인민공화국	14,762,100,536
7	아랍에미리트	10,642,516,512
8	아일랜드	8,805,790,895
9	오스트리아	8,552,721,768
10	스페인	5,717,304,214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7,690,146,320
2	이탈리아	22,454,746,686
3	프랑스	18,860,575,004

4	미국	18,837,900,321
5	영국	16,556,047,817
6	중화인민공화국	15,136,774,306
7	아랍에미리트	15,133,777,729
8	오스트리아	8,454,759,205
9	아일랜드	7,591,834,484
10	스페인	6,450,980,257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6,847,708,399
2	이탈리아	23,670,865,703
3	미국	20,949,882,329
4	중화인민공화국	17,664,561,361
5	프랑스	17,113,361,537
6	영국	16,740,157,294
7	홍콩	12,081,048,895
8	아랍에미리트	10,097,769,325
9	오스트리아	8,957,386,545
10	타이	8,179,340,888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3,185,232,322
2	300490	기타	36,027,137,217
3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3,684,716,443

4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1,138,346,557
5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9,411,839,835
6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4,826,834,091
7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3,898,130,806
8	293359	기타	3,590,888,877
9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579,323,624
10	293399	기타	3,419,301,28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5,755,039,458
2	300490	기타	40,008,295,313
3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4,458,977,640
4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1,692,745,234
5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10,279,918,446
6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8,331,954,221
7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4,261,395,832
8	293399	기타	4,252,756,589
9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120,693,829
10	293359	기타	3,219,259,70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3,180,525,041
2	300490	기타	42,346,530,645
3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9,674,239,085
4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1,582,778,676
5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10,446,941,934

6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8,776,053,388
7	293399	기타	4,775,606,882
8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4,611,984,634
9	293359	기타	3,486,786,269
10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469,219,35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6,353,930,564
2	300490	기타	42,541,493,527
3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34,594,659,866
4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9,192,445,212
5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039,113,343
6	293399	기타	5,472,119,463
7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5,271,964,791
8	293359	기타	4,065,274,619
9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4,028,739,912
10	293719	기타	3,070,033,367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9,432,334,205
2	300490	기타	14,670,405,971
3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62,160,829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069,347,707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2,500cc 이하인 것	3,317,156,766
6	271019	기타	3,158,185,469

7	293359	기타	2,962,491,517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723,189,915
9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2,692,054,421
10	300439	기타	2,691,670,075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2,878,105,129
2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6,103,412,685
3	300490	기타	14,587,866,619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363,772,210
5	293359	기타	4,354,377,934
6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4,292,937,236
7	271019	기타	3,590,688,703
8	300214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532,044,918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053,621,873
10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760,491,26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0,280,269,866
2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6,394,339,251
3	300490	기타	15,766,624,727
4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4,805,168,094
5	293359	기타	4,438,193,646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281,167,171

7	271019	기타	4,046,702,630
8	300214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473,231,570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141,663,206
10	300439	기타	2,988,051,54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87,463,949,089
2	300490	기타	20,079,114,726
3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805,098,649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6,472,226,736
5	300214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896,454,833
6	300439	기타	3,684,032,888
7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2,296,665,200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103,418,941
9	271019	기타	1,967,023,596
10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955,181,256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488	2,735	-2,247
2018	497	3,037	-2,540
2019	589	2,980	-2,391
2020	716	2,749	-2,033
2021	789	2,997	-2,20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206	504	-299
2	7411	승용차	64	0	63
3	5182	시계	30	678	-649
4	9210	그림	1	6	-5
5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4	24	0
6	7414	전기자동차	61	0	61
7	1111	금	37	61	-25
8	7472	항공기부품	18	0	17
9	1112	은	17	3	14
10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0	5	1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157	553	-396
2	7411	승용차	80	0	80
3	5182	시계	62	796	-734
4	9210	그림	56	58	-2
5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4	22	32
6	7414	전기자동차	53	0	53
7	1111	금	27	63	-36
8	7472	항공기부품	26	0	26
9	1112	은	24	0	24
10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1	4	1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5182	시계	30	678	-649
2	2262	의약품	206	504	-299
3	0151	커피류	0	94	-95
4	5183	주얼리	16	75	-59
5	7331	의료용기기	7	95	-89
6	7112	펌프	5	110	-106
7	7512	밸브	0	86	-86
8	1111	금	37	61	-25
9	8151	계측기	1	65	-64
10	9210	그림	1	6	-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5182	시계	62	796	-734
2	2262	의약품	157	553	-396

3	0151	커피류	0	118	-118
4	5183	주얼리	16	118	-102
5	7331	의료용기기	5	83	-78
6	7112	펌프	6	73	-67
7	7512	밸브	1	73	-72
8	1111	금	27	63	-36
9	8151	계측기	2	62	-60
10	9210	그림	56	58	-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 (‘20/US\$백만)	534	대한수입액 (‘20/US\$백만)	8.8
선정사유		• K뷰티 인지도 및 수요 점진적 증가 추세		
시장동향		• 한국산 화장품을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매장 증가 - K-pop 인지도 증가, 유튜브 등 SNS상 K-beauty 유행 - 총수입(백만불) : ’18년(458)→’19년(479)→’20년(534) - 한국산 수입(백만불) : ’18년(3.0)→’19년(3.1)→’20년(8.8)		
경쟁동향		• ’20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백만불) - 독일(142.9), 프랑스(124.1), 영국(45.0)		
진출방안		• CPNP 인증 필수. 동 인증은 서류가 방대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준비기간 필요 • 현지 유럽 파트너 발굴을 통한 대형 종합 유통망 내 뷰티 섹션 또는 프랜차이즈 드럭스토어 입점이 대중 공략에 가장 적합, 한국 화장품 수요는 아직까지 매니아 층에 집중되어 있어 인지도 상승이 관건		
품목명 2	HS Code	190230	수입관세율(%)	23.90
라면	수입액 (‘20/US\$백만)	36.1	대한수입액 (‘20/US\$백만)	2.0
선정사유		• 한국산 제품의 수출 지속 증가		
시장동향		• 수입은 증가세이나 등락을 반복 중 - 총수입(백만불) : ’18년(36.3)→’19년(34.4)→’20년(36.1) • 對한국 소싱 확대 추세(백만불) - ’18년(1.2)→’19년(1.5)→’20년(2.0)		
경쟁동향		• ’20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백만불) - 독일(8.6), 이탈리아(5.3), 폴란드(4.5)		
진출방안		• 대형유통망 납품 벤더의 2차 벤더로 진출 • 시장 점유율 확대 중인 온라인 마트 공략 • 아시아 마트 혹은 한인마트를 통한 진출 • 라벨 및 포장 등 세부내용 파악 필수		
품목명 3	HS Code	392390	수입관세율(%)	0

플라스틱 용기	수입액 (’20/US\$백만)	130	대한수입액 (’20/US\$백만)	1.8
선정사유		• 니어쇼어링으로 식품 기업 자체 생산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 식당 출입 기피에 따른 일반 소비자 수요 증가		
시장동향		• 코로나19로 식당운영 불가에 따른 수입 감소 • 對한국 수입 지속적인 증가세 - 총수입(백만불) : ’18년(146)→’19년(136)→’20년(130) - 한국산 수입(백만불) : ’18년(1.1)→’19년(1.8)→’20년(1.9)		
경쟁동향		• ’20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백만불) - 독일(47.4), 프랑스(15.8), 이탈리아(14.3)		
진출방안		• 장기 플랜에 따른 현지 글로벌 가공식품 제조사 공략 • 일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대형유통망/온라인 유통망 공략 - 대형유통망 벤더의 2차 벤더로 진입 -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망 사용률 확대 추세		
품목명 4	HS Code	851830	수입관세율(%)	0
이어폰	수입액 (’20/US\$백만)	140	대한수입액 (’20/US\$백만)	0.075
선정사유		•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증가, 그에 따른 이어폰 수요 증가		
시장동향		• 코로나19로 수요 증가 - 재택근무에 따른 화상회의 증가 - 야외활동 축소에 따른 미디어 활용 증가 • 수입 지속 증가 • 對한국 수입 지속 증가 - 총수입(백만불) : ’18년(89)→’19년(108)→’20년(140) - 한국산 수입(백만불) : ’18년(0.067)→’19년(0.086)→’20년(0.075)		
경쟁동향		• ’20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백만불) - 중국(94.6), 독일(19.3), 멕시코(3.9)		
진출방안		• 온라인 시장을 통한 인지도 확대 • 장기적 마케팅 전략을 통해 대형 온/오프라인 마켓 집중 공략 • 저렴한 가격이 시장진입에 수월		
품목명 5	HS Code	9503	수입관세율(%)	0
완구	수입액 (’20/US\$백만)	455	대한수입액 (’20/US\$백만)	1.9

선정사유	• 수입 의존성이 높으며 한국산 수입 증가추세
시장동향	• 전체 시장 수입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크리스마스 등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 - 총수입(백만불) : '18년(407)→'19년(403)→'20년(455) - 한국산 수입(백만불) : '18년(1.3)→'19년(1.9)→'20년(1.8)
경쟁동향	• '20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백만불) - 중국(207), 독일(112), 체코(38)
진출방안	• 현지 대형 유통망을 통한 시장 진출이 가장 효과적. 단, 높은 진입장벽으로 장기적 계획 필요 • 코로나19로 온라인 시장 이용률 증가. toys.ch와 같은 장난감 전문 온라인샵 혹은 Galaxus와 같은 대형 온라인 마켓으로 진입

* 각 수출통계는 GTA(Global Trade Atlas) 2021.10.13. 발표치 기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내용	
블록체인 기술	선정사유	• 스위스 금융계, 은행 비밀주의 포기 이후 금융분야 신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및 핀테크에 관심 증가 • 글로벌 블록체인 중심지 (Cryptovalley)로 부상, ICO 관련 제도 정비 등 생태계 조성 중
시장동향		• 블록체인을 활용한 token/crypto-화폐와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Zug市에 Crypt Valley 구축, 관련 기업 및 인력이 풍부한 생태계 조성 중
경쟁동향		• Ethereum, Monetas, XAPO 등 기업들이 기 진출 • 전세계 ICO 중 약 30%가 스위스를 통해 진행

진출방안		• 블록체인 : 현지 VC 행사 (Kickstart Accelerator 등) 활용, Zug 등 혁신지역에 스타트업 진출, Swisscom Blockchain 등 대기업과 기술협력 등 • ICO : Ethereum 등을 벤치마킹하여 현지에 비영리 재단 또는 법인 설립 후 Crowdsale 진행
비디오게임	선정사유	• 글로벌 게임 및 관련 콘텐츠 산업(스트리밍 등) 확대 트렌드, 스위스로 확산 • 현지 소비시장 견고, 게임 인구 3백만명(총 인구의 약 1/3) 이상
시장동향		• 스위스게임개발자협회(Swiss Game Developers Association), 산업 규모는 5천만 CHF 수준 • Swisscom, '18.10월 스위스 최초로 e스포츠 방송(ESL tv, ES1) 및 자체 e스포츠 리그 "Swisscom Hero League" 발족
경쟁동향		• 콘솔 게임 시장점유율은 Playstation4(41.8%), Switch(29.2%), Xbox one(13.2%), Nintendo 3DS(4.8%) 순
진출방안		• 스위스의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가상현실을 위한 제품 개발 등을 통하여 스위스 시장 진출. 스위스 게임 개발 (OZWE Games나 GIANTS Software)과 협력 고려 가능 • 현지 게임 컨벤션 활용 : Zurich Game Show(취리히), Ludicious(취리히), HeroFest(베른) 등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1960-01-04	1960-05-03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도 가입하였으나 유럽연합가입을 위해 탈퇴하였음.
EFTA-터키 FTA	터키	1991-12-10	1991-04-01	2018년 6월 25일 개정안 체결
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EFTA가입국 및 28개 EU국가	1992-05-01	1994-01-01	EFTA가입국들이 EU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EU단일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협정임.
EFTA-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1992-09-17	1993-07-01	
스위스-페로이제도 FTA	페로이제도	1994-01-12	1995-03-01	양자 간 협정
EFTA-모로코 FTA	모로코	1997-06-19	1999-12-01	
EFTA-팔레스티나 자치구 FTA	팔레스티나 자치구	1998-11-30	1999-07-01	
EFTA-마케도니아 FTA	마케도니아	2000-06-19	2002-05-01	
EFTA-멕시코 FTA	멕시코	2000-11-27	2001-07-01	
EFTA-요르단 FTA	요르단	2001-06-21	2002-09-01	
EFTA-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2002-06-26	2003-01-01	
EFTA-칠레 FTA	칠레	2003-06-26	2004-12-01	
EFTA-레바논 FTA	레바논	2004-06-24	2007-01-01	
EFTA-튀니지 FTA	튀니지	2004-12-17	2006-06-01	

EFTA-대한민국 FTA	대한민국	2005-12-15	2006-09-01	대한민국과 맺은 FTA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 협정.*주: 회원국 간의 관세 인하 등 무역 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경제블록화(예: EU, NAFTA, APEC)
EFTA-남아프리카 관세동맹 FTA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6-08-07	2008-05-01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EFTA-이집트 FTA	이집트	2007-01-27	2008-09-01	
EFTA-캐나다 FTA	캐나다	2008-01-26	2009-07-01	
EFTA-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2008-11-25	2011-07-01	
스위스-일본 FTEPA	일본	2009-02-19	2009-09-01	FTEPA(Fre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무역 공동체 협정, 양자 간 협정
EFTA-세르비아 FTA	세르비아	2009-12-17	2010-10-01	
EFTA-알바니아 FTA	알바니아	2009-12-17	2010-11-01	
EFTA-GCC국가 FTA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2009-06-22	2014-07-01	GCC국가: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EFTA-우크라이나 FTA	우크라이나	2010-06-24	2012-06-01	
EFTA-페루 FTA	페루	2010-06-24	2015-12-01	
EFTA-홍콩 FTA	홍콩	2011-06-21	2012-10-01	
EFTA-몬테네그로 FTA	몬테네그로	2011-11-14	2012-09-01	
EFTA-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 FTA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	2013-06-24	2015-12-01	
EFTA-중미국가 FTA	코스타리카, 파나마	2013-06-24	2014-08-29	중미국가(연합):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스위스-중국 FTA	중국	2013-07-06	2014-07-01	양자 간 협정 2007년 11월 회담에서 FTA에 관련 언급이 나왔으며, 2011년 공식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1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리커창 (Li Keqiang) 총리가 스위스를 방문하여 7월 공식 협상 완료하였다.
EFTA-필리핀 FTA	필리핀	2016-04-28	2018-06-01	
EFTA-조지아 FTA	조지아	2016-06-27	2018-05-01	
스위스-영국 무역협정	영국	2019-02-11	2021-01-01	영국의 EU탈퇴로 기존의 스위스-영국 무역질서를 보호하고자 2019년 2월 스위스-영국 무역협정을 체결함. 해당 협정은 영국의 EU 최종탈퇴일인 2020년 12월 31일 이후인 2021년 1월 1일 발효됨.
EFTA - 에콰도르 FTA	에콰도르	2018-06-25	2020-11-01	

〈자료원 : 스위스 경제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EFTA-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FTA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현재 진행 중	
EFTA-알제리 FTA	알제리	현재 진행 중	
EFTA-인도네시아 FTA	인도네시아	현재 발효 협상 중	
EFTA-인도 FTA	인도	현재 진행 중	
EFTA-베트남 FTA	베트남	현재 진행 중	
EFTA-MERCOSUR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현재 진행 중	MERCOSUR(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EFTA-태국 FTA	태국	현재 보류 중	
EFTA-모리셔스 FTA	모리셔스	현재 진행 중	협업선언국가
EFTA-몽골 FTA	몽골	현재 진행 중	협업선언국가
EFTA-파키스탄 FTA	파키스탄	현재 진행 중	협업선언국가
EFTA-미얀마 FTA	미얀마	현재 진행 중	협업선언국가
EFTA-나이지리아 FTA	나이지리아	현재 진행 중	협업선언국가

EFTA-센트럴 아메리카 FTA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 혼두라스, 파나마	현재 보류중	체결: 2015년 6월 22일
EFTA-몰도바 FTA	몰도바	현재 진행중	

<자료원 : 스위스 경제 사무국>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스위스 수입제한은 주로 UN 안보리 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제 제재에 맞춰 시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EU에서 시행하는 경제제재도 시행할 수 있다.

스위스는 현재 북한, 소말리아 등을 대상으로 군 장비, 원료 및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원산지가 개성공단일 경우, 한-EFTA의 역외가 공방식으로 특례 인정). 공산품 중, 수입통제 대상이 되는 제품군들은 국가의 안전, 환경,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방사성 물질, 무기, 폭약, 마약, 유해폐기물, 야생동물 등이 있으며, 필수 비축물자(비료, 항생제, 유류, 비누)와 칸톤의 독점물품(소금) 등이 있다. 해당 품목들을 스위스에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위스의 수입 규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https://www.ezv.admin.ch/ezv/de/home/information-firmen/verbote--beschraenkungen-und-auflagen.html> 참조)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스위스는 유럽연합(이후 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증과 통지에 대한 조례(Accreditation and Notification Ordinance)를 제정하고 인증 당국(SNV)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에게 EU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공통 EU 표준을 준수하고 CE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약을 제정했다.

스위스 표준협회 SNV(Schweizerische Normen-Vereinigung)는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유럽 표준화 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의 회원기관으로서 1919년에 설립되었다. 독일의 표준화 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1996년 국제사회에서 SNV를 스위스의 국가표준 공식기관으로 지정했다.

SNV는 스위스 시장의 전반적인 인증(법규, 표준화, 절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19년을 기준으로 7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 등에서 스위스의 규격, 인증 관련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포탈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제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스위스 기술 정보 센터 SWITEC(SNV가 운영)에서 확인 가능. <https://www.switec.info/en/wto-enquiry-point/sme-portal/> 참고)

TBT

스위스는 WTO/TBT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NV의 품질 관리 기준을 EU 규격과 90% 이상 일치시키고 있으며, 유럽 사법 재판소의 카시스 드 디종 (Cassis-de-Dijon) 원칙**을 도입하여 EU 혹은 EFTA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스위스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케 했다. 단, 2015년 5월부터 스위스 국회에서 식품 분야에 한해 동 규정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EU시장에서 이미 유통이 되고 있더라도, 스위스 식약청(The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로부터 별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카시스 드 중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전체 Negative list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 외의 국가들과는 국제 상호인정 협력을 (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맺고 있다

* WTO/TBT 협정: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막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문

** 카시스 드 디종(Cassis-de-Dijon) 원칙: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례로, EU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출시된 모든 제품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제약 없이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

- 카시스 드 디 중 Negative List :

https://www.seco.admin.ch/seco/en/home/Aussenwirtschaftspolitik_Wirtschaftliche_Zusammenarbeit/Wirtschaftsbeziehungen/Technische_Handelshemmnisse/Cassis-de-Dijon-Prinzip.html

*** 상호인정 협력(MRA): 협정 체결국 간의 제품 규제 조건을 인정,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협정.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링크

https://www.seco.admin.ch/seco/de/home/Aussenwirtschaftspolitik_Wirtschaftliche_Zusammenarbeit/Wirtschaftsbeziehungen/Technische_Handelshemmnisse.html 참고)

참고로 2018년 6월 한국과 스위스는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고 2020년 1월 15일부로 발효되었다. (나. 최근 양국 간 현안 이슈 - 경제 부문 참고)

기타

2021년 5월 26일, 스위스-EU '제도적기본협정'(InstA: institutional framework agreement)'이 양자간 이견으로 인해 결렬되었다. 1992년 국민투표 부결로 최종적으로 스위스가 유럽연합 가입에서 제외가 되면서, 스위스와 EU간에 20여개의 큰 양자협정, 작은 범위에서는 100여개의 협정이 있었는데, 2014년 이러한 크고 작은 협정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이 제도적기본협정이다. 이 제도적기본협정의 핵심 내용은 '단일 시장 접근성'에 대한 쌍방 합의이며, 2014년부터 의논되기 시작했으며 내용은 2018년 12월에 공개되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제도적기본협정의 핵심 사항에 관해 양 측간 상당한 이견이 있어 초안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적기본협정 결렬의 결과로 의료기기 분야 MRA 업데이트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 스위스는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자국의 의료기기 규정(MedDO) 개정 시 스위스의료당국인 Swissmedic에서 지정된 스위스 인증대행기관(SAR)을 거쳐 등록한 제품만 스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반영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전에 CE를 획득한 업체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스위스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스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단, Swissmedic은 이 규정을 '과도기적 규정(원문: transitional provision)'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양측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재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어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참고) MRA는 의료기기 외에도 기계류, 건설기자재 등 20개 품목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이번 MRA 결렬은 '의료기기'에 한정됨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스위스 관세제도는 헌법과 관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 모든 칸톤(미국의 주와 유사)에 적용되고 있다. 관세법은 1925년에 제정됐고, 2007년 5월 82년 만에 대폭 개정되면서 EU 관세 제도에 맞게 재정비됐다. 스위스 관세제도는 총 6,863개의 관세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세율은 EC 유럽공동체(유럽연합 EU의 전신) 및 EFTA 관세율, FTA 관세율, 개도국 특혜관세율(Allgemeinen Präferenzsystemen) 등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1988년부터 HS 방식에 의한 품목분류체제를 도입해 총 8단위를 운영하고 있다. 앞의 6자리는 HS Code 6단위이며 끝의 두 자리는 스위스 자체 설정 2단위이다.

스위스는 선진공업국 중 유일하게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의 목적은 가격이 저렴한 수입소비재에 높은 과세율을

부과하여 자국의 소비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전체 8,482개의 품목 중 무관세품목 1,450개를 제외한 나머지 7,032개 품목에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100kg 단위로 부과된다. 부과되는 관세는 높은 편은 아니나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평균 36.1%)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평균 1.8%)보다 현저하게 높다.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율*은 1.7%이며 무관세는 전체 관세 품목의 18.4%에 적용된다. (농산물 관세품목의 20.2%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됨)

*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가장 낮게 운용하는 세율

스위스 관세법은 2007년 5월에 EU 관세법과 유사하게 개정되어 관세평가 절차가 범 유럽적으로 호환 가능해졌고 적용 대상자의 권리도 확대됐다.

스위스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무역질서를 보호하고자 2019년 2월 2일 스위스-영국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해당 협정은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일 :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기: 영국과 EU 회원국의 기업들이 브렉시트에 대비 기간. 해당 기간까지 영국과 EU 간의 기존 관세동맹은 유지하나 영국은 EU 의사결정 시 참여 못함.

관세율 알아보는 법

스위스 연방관세청(Eidgenössisches Finanzdepartement)에서는 수입 관세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주소는 'www.tares.ch'이며, 수입국별 HS코드로 수입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동 사이트는 독어, 영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 등 4개 국어로 제공되고 있으나, 영어로 HS코드 별 관세는 검색 가능하며 이때 관련 근거 규정은 프랑스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 관세 조회 방법: www.tares.ch 접속 → 국가 및 HS코드 입력해 조회 → HS Code 세부 내역을 다시 선택해서 검색

* 상세 이용 방법에 대한 해외시장뉴스(KOTRA 취리히무역관 작성)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7523>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스위스는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송된 물품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항구를 거쳐 주로 육로를 통해 전달되고 스위스에는 국제항구가 없다. 하지만 스위스의 가장 주요한 항구는 바젤의 라인(Rhone) 항구이다. 스위스의 가장 주요한 무역파트너는 EU 국가들인데, 라인 항구는 라인강을 이탈리아의 제노아 항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를 연결하며 스위스-EU 무역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스위스에서 라인 항구의 Basel-Kleinhuningen, Birsfelden 그리고 Muttentz port를 통해 처리되는 상품은 연간 600~700만 톤에 달한다. 이는 1년동안 전체 스위스 수입의 10~15%를 차지한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스위스에는 취리히, 제네바 및 바젤 3곳에 국제공항이 있다: 취리히공항(www.zurich-airport.com), 제네바공항(www.gva.ch/en), 바젤공항(www.euroairport.com)

취리히 공항을 기준으로 2020년 291,163톤의 화물이 운송되었고 전년대비 35.6%가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화물 운송량은 43.8%가 감소한 반면 육로 운송은 12.1% 감소했다.

반면 취리히 공항 2021년 7월 한달간 화물 운송량은 31,701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7.3% 증가했다.

3) 유의사항

스위스는 Schengen 협약에 2008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EU회원국이 아니므로 세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위스세관의 통관절차는 간단하다. 국경지역 혹은 국제 공항의 보세구역에 세관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세관원이 일일이 통관물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업자 혹은 통관운송 대행업체가 대신 통관서류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 후 관세를 납부하면 통관된다.

2011년 1월 1일부로 우리나라 기업이 스위스와 수출입을 하려면 스위스 세관당국에 교역 물품에 대한 보안정보(security information)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동 정책은 EU 지침으로 비EU 회원국인 스위스는 EU와 상호통관인증조약을 통해 2011년 초 발효하게 됐다.

신규 통관규정에 따르면 스위스는 물품통관에 있어 EU회원국과 동일한 지위를 누리며 EU 회원국에서 통과한 물품은 별도 보안신고 없이 스위스에 반입된다. 반대로 스위스산 제품도 별도 보안정보 제출 없이 EU에 수출될 수 있다. 반면 물품이동에 대한 EU와의 상호조약에 따라 비EU회원국(우리나라 해당)의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보안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 EU회원국과 스위스간 항공으로 물품이 교역되는 경우
 - 수입 시, 수입명세(entry summary declaration)
 - 수출 시, 수출명세(exit summary declaration)가 사전 제출돼야 한다.
- 비 EU회원국에서 EU를 거쳐 스위스에 육로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 수입명세가 최초 도착지 세관에 사전 제출돼야 한다.
- 비 EU회원국이 최종 목적지로서 EU를 거쳐 물품이 반출되는 경우
 - 스위스 출발 전 수출명세가 사전 제출돼야 한다.

4) 기타 참고사항

2013년 1월 1일부터 스위스 정부의 e-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입 시 세관신고는 더 이상 서류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관신고양식 11.010 및 11.030호는 더 이상 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외로 적용되는 케이스는 이사물품인데, 이때 서류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스위스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ezv.admin.ch/ezv/en/home.html>)에서 참고하면 된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통관 정식 통관 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통관서류 제출 → 적하목록 제출 → 물품 검사 및 심사 → 물품 무게 측정 → 통관비용 측정 → 통관증명서 발급 → 통관비용 지불 → 영수증 발급 → 물품 반출 이때 수입업자는 세관신청서와 통관물품 명세, 상품 인도가격과 보험을 포함한 각종 비용, 상품 순수중량, 원산지가 명기된 인보이스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 전시용 샘플 통관 샘플 상품의 통관 절차 시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관세로 통관할 수 있다. - 샘플이 물품의 제 기능(예: 전화기가 전화가 되지 않을 경우)을 하지 못할 경우 - 샘플이 실제 상품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할 시, 그 가격이 100스위스 프랑 이하일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판매용 상품으로 간주되어 정식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약식통관 2013년 1월 1일부터 스위스 정부의 e-정부정책의 하나로 수출입 시 세관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외로 적용되는 케이스는 이사 물품인데, 이 경우에는 서류로 세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생물 및 군수물품은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며 서류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스위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관세청홈페이지)https://www.ezv.admin.ch/ezv/en/home.html 3-1) 약식 통관 앱 - QuickZoll 여행객이 스위스에 입국 시, 개인 및 선물용 또는 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통관을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스위스 관세청 제공)이다. 해당 앱을 통해 물품 신고 및 관세 지불이 가능하다.
-----------	--

통관 시 유의사항

1) 물품 검사 중 유의사항
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제품의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대부분이지만, 국민보건 혹은 안보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을 일단 통관 후 추후에 샘플을 관련 기관에 보내 정밀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입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해당 물품을 강제 반송시킨다. (예: 식품, 의약품, 보호종 동물, 무기류)

2) 그 외의 기타 통관 시 참고사항
서류 혹은 정보 누락 시 통관이 거절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통관 당시 현장 샘플링 검사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예: 여름철 냉동품 등) 예외적으로 최종 배송지에서 샘플링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인증 수출/수입자(Zugelassene Versender/ Empfaenger)

인증 수출/수입자(Zugelassene Versender/Empfaenger) 제도는 수출, 수입 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인증 수출/수입자는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세관의 전자 통관업무 시스템 ‘e-dec’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세관 또한 인원 부족 및 점검시간 지연으로 인한 화물 운송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인증 수출/수입자 제도 신청을 희망할 경우, 각 지역 세관에 개별 연락을 해야 한다.

(세관 연락처) <https://www.ezv.admin.ch/ezv/en/home/the-fca/contact.html>

(내용참조) <https://www.ezv.admin.ch/ezv/en/home/documentation/regulations.html>

한국에는 보세운송제도(Bonded transportation)라고 하여,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수입물품의 화주에게 경비의 절감, 절차의 간소화, 자금부담의 완화 등 편의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 도착한 수입물품을 서울의 공장 내에 있는 자가 장치장에 보세 운송하여 서울세관에서 통관하면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통관을 위하여 서울과 부산을 왕래할 필요도 없어 경제적이다.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며,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제도는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신고방법을 보세운송 신고와 보세운송 승인 신청으로 이원화하였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Kuehne and Nagel International AG

주소	Feldeggstrasse 5, 8152 Glattbrugg
전화번호	+41-44-866-8100
이메일	headoffice@kuehne-nagel.com
홈페이지	https://ch.kuehne-nagel.com/en_gb

◦ Panalpina Welttransport (Holding) AG

주소	Eichstrasse 50, 8152 Glattburg
전화번호	+41-44-829-1111
이메일	info.glattbrugg@ch.dsv.com
홈페이지	http://www.panalpina.com/www/global/en/home.html

◦ Gondrand AG

주소	Uferstrasse 70, 4019 Basel
전화번호	+41-61-285-3000
이메일	weil@ntggondrand.com
홈페이지	http://www.gondrand.ch/

◦ M+R Spedag Gruppe

주소	Kriegackerstrasse 91, 4132 Muttentz BL
----	--

전화번호	+41-58-677-7777
이메일	info@mrspedag.com
홈페이지	http://www.mrspedag.com/en/en-home/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은행/보험/펀드 회사, 호텔 및 요식업, 의사, 약사, 변호사, 와인 도소매, 용역 회사, 카지노/무기 취급 업체는 관할 칸톤 경제부서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법정 자본금은 최소 10만 스위스 프랑이며 1주의 액면가는 이론상으로 최소 0.1스위스 프랑도 가능하다. 유한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2만 스위스 프랑으로 전액 즉시 납부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최소 1명의 이사가 스위스에 상시 체류해야 하며 스위스 국적자일 필요는 없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없으며 회사 명칭에 설립자의 성(姓)이 들어가야 한다. 회사 설립 시기는 경제 활동을 개시한 때부터 시작되며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보장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투자인센티브

스위스 칸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Anreize)로 칸톤 조세 감면(Steuerfreijahre)이 존재한다. 기업은 최대 10년 동안 평균 10% 미만의 법인세를 경감받는다. 이미 스위스에 진출하였고 현재 사업방향을 완전히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칸톤 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스위스 경제에 기여하고 특정 수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각 인센티브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며, 외국인 투자기업만을 위한 별도 혜택은 없다. 일반적으로 각 칸톤에 따라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이 상이하다.

1) R&D 사업 세제 지원

2019년 5월 19일 실시된 세법 개정과 AHV (노령 유족 연금) 제정 관련 국민투표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세율 경감*이 결정되어, 2020년부터 R&D 계열 기술 개발 기업의 스위스 진출이 용이해졌다. 또한 R&D 추가 소득공제는 스위스에서 발생한 적격증빙의 최대 150%를 한도로 소득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관련 세율 경감*: R&D 계열 기술사를 위해 특허권 및 지적 재산권으로 인한 소득의 법인세 최대 90%를 면제

2) 낮은 법인세

2021년 기준 스위스법인세율은 평균 약 16.75%(11.9~21.7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20년 1월 세법 개정 시 △해외 기업 세금 혜택 제도 폐지, △특허 박스(Patent Box), △R&D 추가 소득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스위스의 법인세는 연방세, 칸톤세 및 지방세가 합쳐져 부과되는데, 연방세율은 8.5%의 고정세율이다. 각 칸톤은 각기 다른 세율을 부과한다.

* 2021년 주요 칸톤별 법인세율 현황 : 취리히 19.7%, 루체른 12.32%, 바젤시 13.04%, 추크 11.9% 등

제한 및 금지(업종)

금지 무기산업에 대한 간접 투자 금지 : 2013년에 도입되었으나, 적용사례가 없고 피해 가기 쉬워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스위스에는 연방 국가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특별경제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	--

산업단지

◦ Industrial Park Vial, Domat/EMS

규모	215,000m2
위치	Canton Graubuenden, Domat/Ems 일대
임차료	미공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Amt fuer Wirtschaft und Tourismus Graubuenden - 전화: +41 81 257 23 42 - 이메일: info@awt.gr.ch

◦ Tardisland

규모	330,286m2
위치	Canton Graubuenden, Landquart 일대
임차료	미공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Amt fuer Wirtschaft und Tourismus Graubueden - 전화: +41 81 257 23 42 - 이메일: info@awt.gr.ch

◦ Innovation park Zurich

규모	380,000m2
위치	Canton Zurich, Zurich 일대
임차료	미 공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Stiftung Innovationpark Zuerich - 전화: +41 43 259 49 10 - 이메일: zurich@switzerland-innovation.com

◦ Technologiecluster Zug

규모	80,000m2
위치	Canton Zug, Zug 일대
임차료	미 공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V-Zug Immobilien AG - 전화: +41 58 768 60 20 - 이메일: info@technologiecluster-zug.ch

○ Infrapark Baselland

규모	370,000m2
위치	Canton Basel-Landschaft, Muttentz 일대
임차료	미 공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Infraparkt Baselland AG - 전화: +41 61 469 59 99 - 이메일: info@infrapark-baselland.com

〈자료원 : 칸톤 및 기업 홈페이지 통합〉

주요 지역별 여건

○ 취리히(Zurich)

스위스 최대의 도시로 경제수도로 꼽히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금융 허브이다. Zurich Insurance, UBS, Credit Suisse, Swiss Re, Chubb 등의 포춘 500 금융사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금융 및 보험업에서 연간 부가가치 약 250억 스위스 프랑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 밖에도 다국적 엔지니어링기업 ABB, HR 솔루션 기업 ADECCO 등이 자리한 다양한 산업의 중심지이다.

○ 제네바(Geneva)

스위스 제2의 도시로 불리는 제네바에는 UN 제네바 사무국,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난민기구(UNHCR)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가 밀집하여 있다. 또한, 제네바는 프라이빗 बैं킹을 중심으로 금융업이 발달했다. 이 밖에도, 유럽 3대 모터쇼로 손꼽히는 제네바 모터쇼를 개최하고 자동차, 운송, 숙박업과 정보 통신 산업 분야에서 연간 약 140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베른(Bern)

스위스의 행정 수도인 동시에 광업, 제조/건설업이 발달해있다. 또한 칸톤은 최근 베른을 교육, 의료 기술, ICT 및 에너지 기술 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식 및 기술이전(Knowledge and Technology Transfer, KTT)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베른에는 세계적인 시계제조사인 OMEGA, Swatch Group 등을 중심으로 정밀기계/시계 부품 제조사들이 다수 자리 잡고 있어, 스위스를 대표하는 시계 산업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다.

○ 보(Vaud)

세계 최대 식품회사 네슬레의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이 밖에도 취리히 연방공대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로 손꼽히는 로잔연방공대가 자리 잡고 있어 우수 인재 채용에 용이하다. 칸톤의 주요 산업으로는 스포츠, 문화, 교육 등이 꼽힌다.

○ 바젤(Basel)

바이오 제약/화학 산업이 발달한 바젤에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바티스, 로슈, 론자 및 화학기업 클라리안트, 신젠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국경을 접하고 있어 운송업이 발달했다.

○ 추크(Zug)

인구 약 12만 명의 작은 도시 추크는 경쟁력 있는 법인세 등을 이유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지주사(Holding companies)를 유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약 600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추크의 크립토밸리에 자리잡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150467	110723	-68313.4	-79077.3	-47171.9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166852	19522.4	43491.5	-43722.6	16767.5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3	7	121	15	104
2020	11	4	277	10	250
2021	5	2	8	4	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3	1	10	3	10
도매 및 소매업	3	3	35	3	18
정보통신업	3	1	1	5	1
금융 및 보험업	1	0	60	1	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2	15	3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4	1	147	4	147
도매 및 소매업	1	1	21	2	23

정보통신업	1	0	0	1	0
금융 및 보험업	3	1	109	2	80
교육 서비스업	1	1	0	1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4	2	8	4	7
교육 서비스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대한항공취리히지점

진출연도	1976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서비스업
모기업명	대한항공

○ 삼성전자 스위스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핸드폰, 노트북, TV 등
모기업명	삼성전자

○ 엘지 전자 스위스 지점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엘지전자

◦ MCM Product AG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피혁제품(가방, 벨트)
모기업명	MCM

◦ 두산중공업 ATS R&D 센터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기술 개발
취급분야	산업용 가스 터빈
모기업명	두산중공업

◦ AGENCORE AG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업
취급분야	방사능 부산물
모기업명	Agencore AG 홈페이지 : http://www.agencore.ch/index_kr.html

◦ 현대일렉트릭 R&D 센터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연구법인
업종	기술 개발

취급분야	변압기/고압 차단기
모기업명	현대일렉트릭

◦ HDAC Technology AG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법인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업
취급분야	가상화폐
모기업명	현대BS&C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법인
업종	재 보험업
취급분야	손해보험재보험, 생명보험재보험
모기업명	코리안리 재보험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종합〉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영어권의 'Corporation'에 해당되며 스위스에서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띤다.

*아래 [회사유형] 내용 참고

지사

스위스 상법에서는 지사를 법인과 구분하지 않아 허가, 등기, 과세, 회계에 이르는 모든 사항에서 법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스위스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지사의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진출 형태는 주식회사(AG)나 유한책임회사(GmbH) 형태를 이룬다.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요구되지 않고 명칭은 본사의 이름과 지명이 나와야 한다. 설립 컨설팅 비용은 최소 1,000스위스 프랑 이상이다.

연락사무소

스위스는 별도로 연락사무소 형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스위스의 투자진출 형태는 신규 법인 설립, 기존 주식 취득, 합작법인 설립, 기술제휴 및 지사 설립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스위스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들이 선호하는 기업 형태는 주식회사(AG) 혹은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GmbH이다. 스위스 법상 외국인의 회사 설립을 제한하는 형태는 없기에 외국인에게만 어려운 기업/투자 형태는 없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 현지법인: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설립 절차(한국 기업이 선호하는 진출형태) 영어권의 ‘Corporation’에 해당되며 스위스에서 가장 흔한 법인형태 중 하나로서 법정 자본금은 10만 스위스프랑이며 최소 5만 스위스프랑 이상 혹은 주당 최소 20% 이상 납입돼야 한다. 설립 주주는 적어도 3인이어야 하는데, 개인, 법인, 재단 등 모두 가능하며, 주주(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중 최소 1명은 스위스 거주자(국적불문)여야 한다. 실제로는 1인 주주회사도 있으나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회사 명칭은 자유로이 선택 가능하나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약칭 AG를 덧붙여야 한다. 회사 운영기구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가 있으며, 자산총액 2천만 스위스프랑, 매출액 4천만 스위스프랑, 250명 이상 고용 기업은 매년 정식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정규직원 10명 미만인 소기업인 경우 약식 감사가 가능하다. 주로 대규모 영업활동에 적합하며, 설립과 동시에 장부기장의 의무를 지닌다. ○ 지사 및 연락사무소 : 외국 회사들이 스위스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지사의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스위스 상법에서는 지사를 법인과 구분하지 않으며 허가, 등기, 과세, 회계에 이르는 모든 사항에서 법인에서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소자본금은 없으며, 회사 명칭은 본사이름과 같아야 하고, 지사 소재지나 지사임을 뜻하는 표현을 덧붙여야 하며 설립 컨설팅 비용은 최소 1,000 스위스프랑 이상이다. ○ 인수합병(M&A) : 외국 회사들이 스위스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지사의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스위스 상법에서는 지사를 법인과 구분하지 않으며 허가, 등기, 과세, 회계에 이르는 모든 사항에서 법인에서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소자본금은 없으며, 회사 명칭은 본사이름과 같아야 하고, 지사 소재지나 지사임을 뜻하는 표현을 덧붙여야 하며 설립 컨설팅 비용은 최소 1,000 스위스프랑 이상이다. ○ 그 외 : 그 외 Limited Partnership for Collective Investment(약자: LLP), Sole Proprietorship, General Partnership, Ordinary Partnership 등의 투자진출형태가 있다. LLP의 경우 자격이 있는 투자가들만 설립할 수 있는 리스크 캐피탈 투자에 사용되는 회사 형태이다.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형태로, 소규모 사업에 적절한 회사구조이다. General Partnership은 한 회사를 2명 이상의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형태이다. 이 밖에 재단 설립도 고려할 수 있는데, 재단은 보통 문화적/이념적인 목적을 띠며, 가문 재단(family office), 종교 재단, 연금 재단 등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으나, 재단 설립 허가는 연방재단 감사회(Federal Supervisory Board for Foundations)에서 결정한다. 설립 목적에 따라 칸톤 세관에 세금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3) 분쟁해결 스위스 내 기업간 분쟁은 스위스 내 바젤, 제네바, 로잔, 루가노, 뇌샤텔, 취리히 상공 회의소에서 분쟁을 중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해당 상공회의소에 분쟁해결 절차를 접수시키면(접수비용 300 스위스 프랑) 내용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다. 자세한 사항은 www.swissarbitration.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기존의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를 전제로 하였으며, 1인 이상의 이사와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필요로 했다. 2008년 스위스 연방정부는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위해 유일한 주주이자 이사로 1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회사법을 개정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결기관을 담당한다.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 10만 스위스 프랑이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설립 소요 기간은 약 6주이며,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예비심사, 회사명 등록 및 승인
- ② 필요 서류 준비: 기업 현장 및 회사 정관, 법령, 신청서 등
- ③ 지정 은행에 자본금 예치(예치자 신원확인 및 스위스 현지 파트너 추천서 제출 필요)
- ④ 기업 현장 또는 회사 정관 설립

- ⑤ 칸톤 정부 공식 공표
- ⑥ 상업등기소, 토지등기소 정식 등록
- ⑦ 과세 대상 기업 등록

설립 절차 중 예상 소요비용은 일반적인 방법(컨설팅회사의 자문)으로 진행할 경우, 약 7000~9000스위스 프랑, 전자등록으로 할 경우 1,950~2,450스위스 프랑이 소요된다.

스위스 내 지역별 주식회사를 뜻하는 언어가 다르다(독일어 : AG(Aktiengesellschaft), 불어 : SA(Société anonyme), 이탈리아어 : S.p.A(Società per Azioni))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회사 파산 시, 개인 자산으로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며 회사 주식 매각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닌 장점이 있다. 2인 이상으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 각 동업자는 투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으며, 동업자의 권한은 조건 내에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설립 시에는 최소 1인의 등기 이사가 스위스에 거주해야 한다.

2008년 1월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기존 설립조건 중(최소 인원 2인 및 최대 자본금 2백만 프랑 제한 및 최소자본금 2만 프랑) 최소 인원 및 최대 자본금 조건이 폐지되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절차는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 비용은 일반적으로 6,000~8,000, 전자등록 시 1,800~2,150 스위스 프랑이다. 지역별 유한책임회사를 뜻하는 언어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독일어 : GmbH(Gesellschaft mit beschrnkter Haftung), 불어 : Srl(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이탈리아어- S.r.l(Società a responsabilità limitata)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들은 경우 보통 무역, 제조 또는 상업 분야에 종사하며 법적 성격은 없다. 일반적으로 젊은 기업가들이 개인사업자 방식을 택한다. 누구나 1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고,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으나, 사업가는 무한책임으로 개인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화가나 미용사 같은 예술 계통의 업자들이 많이 이 형식을 사용한다.

EU/EFTA 외 제 3국 국민의 경우, 장기체류 비자(C) 허가증을 가지고 있거나 스위스인과 혼인한 경우에만 한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회사의 이름은 사업자의 본인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으로, 사업 목적과 회사명을 상업등기소와 토지등기소에 등록하고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에 수입이 10만 스위스 프랑 미만일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상 소요비용은 상업등기소 등록 수수료 120 스위스 프랑을 포함, 일반적으로 약 1,120스위스 프랑이 소요된다.

지역별 명칭은 독일어 'Einzelunternehmen', 불어'L'entreprise individuelle', 이탈리아어 'Ditta individuale'이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Wicki Parnters

전화번호	+41 43 322 1500
------	-----------------

주소	Stockerstrasse 44, 8002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wickipartners.ch/de/
이메일	contact@wickipartners.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회사법 전문

◦ Buergi Naegeli Rechtsanwaelte

전화번호	+41 44 268 4050
주소	Grossmuensterplatz 9, 8001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bnlawyers.ch/
이메일	info@bnlawyers.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국제조세 전문

◦ MME

전화번호	+41 44 254 9966
주소	Schuetzengasse 1, 8021 Zue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mme.ch/
이메일	office@mme.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회사법, ICO 전문

◦ Vischer

전화번호	+41 44 254 3400
주소	Schuetzengasse 1, 8021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vischer.com/home/
이메일	info@visch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국제조세 전문. 한국 회사의 스위스 투자진출 지원경험: 있음(설립대행)

◦ Boston Consulting Group

전화번호	+41 44 388 8666
주소	Muenstergasse 2, 8001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bcg.com/offices/zurich/default.aspx
이메일	info@bcg.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국제조세 전문

◦ KPMG AG

전화번호	+41 58 249 3131
주소	Badenerstrasse 172, CH-8004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ch/en/home.html
이메일	info@bcg.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국제조세, ICO 전문

◦ ERNST and YOUNG AG

전화번호	+41 58 286 3111
주소	Maagplatz 1, 8005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ey.com/en_gl
이메일	info@bcg.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국제조세 전문

◦ Swiss Korean Blockchain Advisors

전화번호	+41 76 523 71 72
주소	Dammstrasse 16, 6300 Zug,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skbadvisors.ch/
이메일	info@SKBadvisors.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ICO 전문

◦ Amicorp Switzerland AG

전화번호	+41 44 200 3241
주소	Mühlebachstrasse 54, 8008,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amicorp.com/
이메일	Ju.Lee@amicorp.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전문

◦ STARTUPS.CH AG

전화번호	+41 52 269 30 80
주소	Lagerhausstrasse 18, 8400, Winterthur,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startups.ch/
이메일	info@startups.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전문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스위스 프랑(CHF)은 정치적, 경제적 변수로 인해 달러나 유로화가 불안정할 때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2015년 1월 15일부로 스위스 연방 중앙은행이 유로화 대비 스위스프랑 환율 하한선을 두는 환율 하한제를 폐지하면서 급격히 평가 절상됐다. 또한, 2011년 이래로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스, 스페인 등의 채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위스 프랑의 미 달러 및 유로 대비 강세가 계속됐으나, 2018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실물지표 개선 추세, 유로존 경기회복, 대내외 정치적 리스크 해소로 인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 그동안의 스위스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스위스 프랑 약세가 지속되었다.

유로화 대비 스위스 프랑 환율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4월 20일에는 1.2006까지 떨어졌다. 이는 스위스 중앙은행(SNB)이 유로당 1.20스위스 프랑으로 설정해 두었던 환율 하한선을 2015년 1월 철폐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자 각 기구들은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예 : OECD, -4.2%)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안전 통화로 취급받는 스위스 프랑(CHF)의 수요가 증가하여 프랑화 가치는 더욱 상승했다(2021년 9월 21일 기준 1유로=1.09스위스 프랑).

2020년 6월 18일,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0.75%로 동결시켰다.

스위스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화 보유액이 큰 편이다. 2020년(2021년 9월 기준 최신자료) 외화 보유액은 약 9,990억 스위스 프랑(약 11,150억 달러)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집계된다.

외환 규제

스위스는 외환의 구입·매각·송금을 규제하지 않아 외환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금의 매입 및 매각도 완전히 자유롭다. 다만 대외 경제지향적인 스위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대해서 연방중앙은행(SNB)이 다양한 금융통화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한편 연방중앙은행은 국제외환 시장에서의 수요급증에 따른 스위스 프랑 강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1년 9월 6일부터 1유로당 1.2 스위스 프랑의 환율 하한선을 유지하는 제도(최저 환율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 15일, 연방중앙은행은 유로화 대비 환율 하한제를 폐지하여 외환시장에서 스위스 프랑이 급격히 평가 절상된 바 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0.93스위스 프랑(2021년 9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7,32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5,954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0
비고	스위스에는 법적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시간당 20~25스위스 프랑을 지불한다.				

<자료원 : Paylab>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스위스의 근로계약은 근무시간, 임금, 직무, 수습 기간 등을 포함하며, 직무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직군마다 약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의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 근로계약 형태로는 개인계약, 단체협약계약, 표준 근로계약 등이 있다.

개별 근로계약(Einzelarbeitsvertrge)
특별한 전제조건 없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되는 계약서를 의미하며, 기간제와 무기계약으로 나뉜다.

단체협약계약(Gemainsam Arbeitsvertrge)
고용주와 직원조합/노동조합에 의해 맺어진 계약서로,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양측에서 동의한 최소조건에 근거한 계약서로, 최소 임금 등을 포함한다.

표준 근로계약(Standard Arbeitsvertrge)
표준 근로계약은 스위스 연방 혹은 각 칸톤에서 규정한 것으로, 근무 시간, 휴가, 사직 통보 기간 등의 근무 조건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각 칸톤은 농업 등의 산업 종사자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게 되어있다. 또한, 단체협약계약이 없는 일정 산업군에서 부적절한 임금 삭감이 반복될 경우, 관련 정부 당국이 표준 근로계약을 제시할 수 있다.

근로시간

스위스 노동자의 주당 일반 근무시간(Normalarbeitszeit)은 38.5~42.5시간으로 대한민국 노동자의 주당 일반 근무시간인 40~52시간 보다 짧은 편이다. 오피스 근무를 기준,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회사에 따라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주 5일 근무(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통상이다. 스위스 노동법 제9조에 따라 법정 최대 근무시간(maximum working hours)은 분야별로 상이해 산업시설 등의 최대 주당 근무시간은 45시간(사무종사자, 기술직, 대형 유통업체 판매원 등이 해당), 은행 등 상업종사 분야는 50시간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 노동계약은 유연하여 필요 시 일주일 5일 전일 근무가 아니라 80%(주 4일) 등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당초 계약상 근무 일수는 고용주와 직원 간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출산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휴가

1) 유급휴가

모든 피고용인에게는 연간 최소 4주(2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되며(20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5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이중 최소 2주는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파트타임 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2) 임신출산휴가

연간 유급휴가는 임신출산휴가와 구별돼야 하며 임신출산휴가는 유급 14주(해당 기간 급여의 80%, 하루 최대 196프랑 지급)와 무급휴가 추가 2주로 구성된다. 임신출산휴가를 받은 여성 노동자는 최소 9주 후에 휴가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자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임신을 사유로 임신 기간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하다. 남성의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으로 통상 휴가 2일을 주며 법적 기준은 없다. 단, 2020년 9월 27일 남성에게 2주간의 육아휴직을 주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가 열릴 예정이다.

3) 질병, 사고, 법정 의무 수행으로 인한 결근 시의 급여 지불

고용자가 질병이나 사고 또는 법정 의무수행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고용주는 급여의 80%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험(BUV)에 들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한다).

4) 기타 휴일

유급휴가 외 추가로 연간 9일의 공휴일이 주어진다. 주(Kanton)별 공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일부 주에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모든 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휴일은 1월 1일(신년), 예수승천일(매년 날짜 상이함), 8월 1일(독립기념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이며 나머지 공휴일은 주별로 상이하다. 칸톤별 공휴일은 www.feiertagskalende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용인에게 이 외에 경조사 휴가도 부여할 수 있으며, 노동법은 경조사에 따른 휴가일 수를 공고하고 있다.

(노동법에 공고한 경조사 휴가일 수)

https://www.seco.admin.ch/seco/de/home/Arbeit/Personenfreizugigkeit_Arbeitsbeziehungen/Arbeitsrecht/FAQ_zum_privaten_Arbeitsrecht/freizeit-und-feiertage.html

해고

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약통보 없이 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에 고용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통보기한이 고용계약서 혹은 단체 협약서에 명시돼 있으나, 계약이 없거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Swiss Code of Obligations에 따라서 고용계약해지를 위한 사전통보기한이 적용된다.

수습기간(최장 3개월) 중: 7일 전

근무 기간 1년 차: 1개월 전

근무 기간 2~9년 차: 2개월 전

근무 기간 10년 차 이상: 3개월 전

계약해지 사전통보기한은 그 외에 서면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도 있으며 1개월 미만의 해고 통지기간은 합의된 단체 계약서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 통보 서한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보 기간 전에 계약해지 대상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한편 사전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 해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피고용인의 사기행각 적발, 근무 거부, 무단결근, 지각 반복, 사업 기밀 누설 및 스파이 행위 등과 같은 상황이다. 단 실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논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연도 계약 기간 종료 후 양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근무하게 될 시, '무기한 고용계약'으로 간주되어 추후 해고 통지 시 사전 통보가 필요하며 해약통보 기간은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의 해약통보 기간과 동일하다.

임신 여성에 관한 사항은 위 “임신출산휴가” 참조.

퇴직금

적법한 해고(적법한 해고사유에 의한 적법한 해고통고 기간 준수) 시의 퇴직금 지불은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 스위스 퇴직금 관련 법률(Abgangsentschdigungen)에 따라 50세 이상의 고용인이 해당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인이 계약 기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고용인 배우자나 직계비속 또는 타 부양가족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퇴직금액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근무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는 관례가 있으며, 고용 계약서상에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아 관례대로 근무기간에 따라 지불 시 최대 8개월분 급여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개월~8개월분 급여 수준 지불). 비 적법한 해고 시 고용주는 잔여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고용 계약이 지속됐을 경우에 고용인이 향유할 수 있었던 모든 금전상의 이익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금은 최대 6개월분의 급여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1) 노사협의회

스위스의 노동법은 다른 유럽에 비해 기업이 비교적 자유롭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의 주요 노동법은 1964년에 제정된 연방 노동법으로서, 동법은 특정 산업을 위한 단기 노동규정(1975년 11월 제정), 특정 산업을 위한 특별규정(1975년 11월 제정), 노동자 보건 및 안전규정(1969년 3월 제정)으로 구성돼 있다. 공장 근무여건(1914년 6월 제정), 노동분쟁의 중재(1949년 2월 제정), 단체임금교섭(1956년 9월 제정)에 관한 연방법이 있으며, 법정휴가보상(1983년 12월 제정), 사회보장(1946년 12월 제정), 노인보험에 관한 규정(1947년 8월 제정), 의료보험(1981년 3월 제정), 사고 보험(1981년 3월 제정), 실업보험(1982년 6월 제정), 개인연금(1982년 6월 제정) 및 직업 훈련(1987년 4월 제정)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 단체권

외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협력하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경제체제 변화, 고임금 노동자들의 높은 생활 수준, 중요한 정치, 사회 및 경제문제에 자신의 이익을 반영해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로 인해 노동조합은 크게 활성화돼 있지는 못하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회원의 이익을 대표해 자신들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공표할 수 있다. 스위스의 노동조합연맹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및 세계노동연맹, 유럽 무역노동조합연맹에 속해 있다.

3) 단체 협상권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벌일 권리, 노동조합원 차별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스위스 정부는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장려하고 있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스위스 사회보장제도 중 특이한 점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고용주 부담분이 없으며 전적으로 고용인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3기둥체계(삼주제도, Drei-Sulen-System)'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스위스 거주인의 연금, 고용, 산재, 건강 보험에 대한 의무 규정을 정하여 스위스의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다.

삼주제도의 3분야

- 1) 노년 준비 및 사고 발생 혹은 사망을 대비: 연방 의무 국가연금 및 보험 가입-노령연금(AHV), 장애연금(IV), 실업 보험(ALV), 임산부 보험(MUV), 군복무 소득 보상 연금(EO)
- 2) 법정 연금 기금. 18세 이상의 모든 고용인(연간 소득 21,330프랑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퇴직 후 해당 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기금(BVG), 의무 사고 보험(UVG)
- 3) 자의의 개인 보험

1번 및 2번의 경우 스위스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모든 이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생계보험 및 출산보험 등을 포함한 것으로, 피고용자의 퇴직, 노동 장애, 사망 시 피고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모든 스위스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스위스에 거주할 경우 3개월 내에 건강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단, EU/EFTA 외 국가의 유학생 및 인턴은 스위스에서 개인보험이 있다면 의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스위스는 연간 총 5만 7,600프랑을 연금에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별 마지막 소득(월급)의 60%를 연금으로 받고 있다. 보험료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일반적인 피고용인과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납부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한국은 2015년부터 발효된 한국-스위스 사회보장협정으로 파견근로자 및 기업의 연금 및 고용보험료 납부 면제

또한 한 고용주에게 12개월 이상 고용된 피고용자는 실업급여보험(ALV)에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각각 50%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자영업자는 실업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고용주는 직원 채용 및 퇴사 시 상기 기관에 인원 변동 내역을 전달하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및 대납 등을 진행해야 한다.

산재보험

스위스 연방정부는 8시간 이상 고용된 피고용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피고용인의 급여에 비례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참고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스위스 조세제도는 26개 독립적인 칸톤(Kanton) 및 약 2,202 개의 자치제(Gemeinde)로 구성된 스위스의 연방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해 모든 칸톤들은 연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조세를 제외하고 모든 조세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스위스는 연방 국가로 연방정부와 칸톤들이 합의해 조세제도의 큰 틀을 정하고 있으며, 상호 중복과세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일부 조세는 독점적으로 연방 정부에 의해 부과되고 일부 조세는 칸톤 등에 의해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스위스 진출 시 투자대상 칸톤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조세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칸톤으로는 Zug, 슈비츠(Schwyz) 등을 꼽을 수 있다).

연방세(Direct federal tax: direkte Bundessteuer)

법인소득세는 8.5%로 정률제이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차등적용 되고 있다. 한편, 협회, 재단 및 기타 법인과 투자신탁의 경우 4.25%의 flat rate 법인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스위스 내 법인(스위스 기업, 유한회사, 재단, 투자신탁 등)이며 파트너십의 경우 매우 투명하기 때문에 개별 파트너가 과세대상이 된다. 스위스 내 등록된 사무실 혹은 회사 운영장소가 있는 경우를 스위스 내 상시 거주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

- 배당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on dividends and on interest; Verrechnungssteuer): 35%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Mehrwertsteuer): 7.7%(호텔업 3.7%, 생필품 2.5%) 2018년 1월 1일부로 적용
- 인지세(Stamp duty; Stempelabgaben): 1%
- 담배세(Tabaco Excise tax; Tabaksteuer) : 1개비당 11.832 센트
- 유류세(Mineral oil tax; Minerallsteuer): 휘발유 리터 당 73.12 센트, 디젤 리터 당 75.87 센트, 난방유 리터 당 0.3 센트
- 자동차세(Automobile tax; Automobilsteuer) : 4%
- 관세(Customs duty; Einfuhrzoll) : 품목마다 다름

(연방 관세청에서 제공한 관세 포털 링크 :

https://xtares.admin.ch/tares/main/mainFormFiller.do?sessionId=sh_UnmwkocSzuGHmnZD_6MPbbPVMtU62NhQXA7CaUPxUi7BB7bHW!1407501958)

- 우리나라와는 2006년 9월 1일부로 FTA가 발효 중이어서 많은 제품군에서 무관세
- 군면제세(Military exemption tax; Militrbesteuerung) : 400프랑 이상의 소득에 3%

칸톤세

칸톤별 조세제도는 연방정부의 조세제도와 틀이 유사하나 세율은 칸톤마다 다르다.

- 법인세/개인 소득세(Gewinnsteuer/Einkommenssteuer) : 법인세 2~24% 수준(칸톤 및 지방자치세)

총 26개 칸톤 기준 평균 법인세율은 16.75%이며 15개 칸톤이 평균이하 법인세율을 부과함

주요 칸톤별 법인세율 : 취리히 19.7%, 루체른 12.32%, 바젤시 13.04%, 추크 11.9% 등

- 자본세(Capital tax on corporations : Kapitalsteuer) : 자본세는 칸톤에서만 징수하며 세율은 기업의 순 지분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데 통상 0.01% 가량이다.

- 개인 순 재산세(Net wealth tax on individuals : Vermgenssteuer)
- 교구세(Parish tax o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 Vermgenssteuer)
- 부동산 이득세 및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gains tax o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 Grundstückgewinnsteuer 및 Handaenderungssteuer)

- 상속 및 증여세(Inheritance and gift taxes :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n)
- 오토바이세, 애견세, 칸톤 인지세, 수력발전소세, 복권세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방 차원에서는 개인 소득세를, 칸톤 차원에서는 개인 소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한다. 내국인은 1년에 1회 자진 소득 신고로 3월 10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0일 중 택 1해 소득세를 납부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분기 별 원천 징수해 조세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내국인은 세전 총수입에서 사회 보장세, 의료 보험료 등 세금공제 혜택을 제외한 종합 소득 과세표준에 칸톤마다 기혼 여부, 자녀 여부 및 소득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소득세율이 부과된다[통상 축(Zug) 칸톤이 가장 낮고, 노이샤텔(Neuchatel) 칸톤이 가장 높다.

스위스에서 고용되지 않은 부유한 외국인 거주자는 정액세(Lump-sum taxation) 제도가 적용되는데, 이는 외국인에게 소득금액과 상관 없이 지출금에 소득세를 부여하는 특별한 소득 과세 방법, 일종의 혜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은행 경영진들이 엄청난 보너스를 챙겨 부유층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모했으며, 억만장자들에게 면세나 다름없는 이 과세제도를 반대하는 스위스인들이 2010년 과세제도를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당국은 정액세를 폐지하지 않았으나, 기존 규정을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더욱 엄격하게 조치가 적용되었다.

해당 과세는 다음 단계에 걸쳐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 과세대상 소득은 스위스 내 거주지의 임차료비용의 7배 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 과세금액은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채권 등)과 같아야 한다.
- 연방정부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요구 과세 금액은 400,000 프랑 이상이며,

해당 기준은 칸톤에 따라 최소 요구 과세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부가가치세

스위스의 부가가치세는 7.7%(호텔업 3.7%, 생필품 2.5%)로 독일의 19% 등 인근 국가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기존의 8%(호텔업 3.8%, 생필품 2.5%)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로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연간 매출액이 10만 프랑 이하인 기업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 비영리 및 문화 기관 및 업체의 경우 매출액 15만 프랑 이하는 면제된다.

특별소비세

스위스의 특별소비세로는 석유류세(Mineralsteuer), 휘발성 유기화합물세(Lenkungsabgabe auf flüchtigen organischen Verbindungen), 자동차세(Auto mobilsteuer), 맥주세(Biersteuer), 담배세(Tabaksteuer), 화석연료에 적용되는 이산화탄소세(CO2-Abgabe) 등이 있다. 석유류세(Mineralsteuer)는 제품 및 제품의 용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납 포함 휘발유에 대해 리터 당 73.12라펜, 디젤류에 대해 리터당 75.87라펜, 난방용 기름에 대해 리터당 0.3라펜이 적용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세(Lenkungsabgabe auf flüchtigen organischen Verbindungen)는 페인트, 청소용 세제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적용된다. 스위스 관세청은 해당 화합물군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세금이 적용되는 화합물군을 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에 해당 제품/물질 수출 희망 시 관세청에 문의해 세금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Automobilsteuer)는 수입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해 부과된다.

독일에서 자동차 구매시 통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링크 : https://www.vertragshilfe.ch/autoimport-deutschland-schweiz/#Wie_ist_der_Ablauf_beim_Zoll_fuer_den_Autoimport

맥주세는 맥주의 강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10도까지는 헥토리터당 16.88스위스 프랑, 10.1~14도까지는 헥토리터당 25.32스위스 프랑, 14.1도부터는 헥토리터당 33.76스위스 프랑이 적용된다.

담배세(Tabaksteuer)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돼 1개비당 11.832라펜 및 개피당 소매가격의 25%가 부과된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1갑, 20개비 기준, 2019년 4월 기준)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8.60스위스 프랑으로 총 부과 세금은 5.131스위스 프랑(담배세 4.516스위스 프랑, 부가세 7.7%(0.615스위스 프랑))이다.

이산화탄소세(CO₂-Abgabe)는 난방용 및 전력용으로 사용되는 유류,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적용된다.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세율은 CO₂ 톤당 96스위스 프랑, 난방용 기름은 15도 기준 1,000리터당 255.40스위스 프랑, 가스는 1,000kg당 255.40스위스 프랑이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80개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국가 경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을 측정한 글로벌 혁신지수(GII)를 매년 발표하는데, 스위스는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WIPO는 스위스가 특히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높은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스위스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법(1954), 상표법(1990), 저작권법(1992), 디자인법 (2001)을 제정하여 발명품에 대한 특허부터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발명은 특허받을 수 있다.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신규성 등이란 획기적이고 독창적이며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 특허권은 독어·불어·이탈리아어 중 한 언어로의 번역본을 (출원 시 혹은 기한 전에) 제출해야 하며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이란 선, 표면, 윤곽, 색채 및 재료의 배열이 특징이 되는 제품이나 부품의 디자인을 말하며,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및 차별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방식심사 및 실질심사를 모두 거쳐 등록되며, 등록된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보호되고, 5년 단위로 4회 갱신할 수 있다.

상표는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문자, 단어, 그림, 3차원적 도형을 포함하는 도형, 또는 그 조합일 것으로 표장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2)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3) 상표가 법·질서·도덕성에서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9.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기업의 파산에 따른 회사 청산 사항은 연방 강제집행법(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에서 명시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 링크) http://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8890002/index.html 파산으로 인한 청산에 따른 상업등기소에서의 기록삭제와 관련된 사항은 상업등기부규정(Handelsregisterverordnung)에 명시돼 있다. (세부 링크) http://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072056/index.html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는 법인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개인회사의 경우 상업등기부에 적절한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철수가 완료된다.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 유한책임회사(Gesellschaft mit beschrnkter Haftung) 혹은 조합(Genossenschaft)의 철수 및 청산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1) 해산의 결정(Beschluss) 회사의 해산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의 경우 이를 단순과반 혹은 가중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해산결정 시 자본의 75%, 주주의 3/4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의 경우 투표참여자의 최소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정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2) 청산인 임명(Ernennung des Liquidators) 주주들은 청산인을 임명하고 회사의 청산을 진행한다. 주주들이 법원에 요청할 경우에는 판사가 청산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 3) 해산 신청(Anmeldung zur Auflsung) 기업은 상업등기소에 기록 삭제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서명권한이 있는 행정 위원회(Verwaltungsrat) 위원과 최고경영진 두 명이 서명해야 한다. 만약에 모든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사임하여 서명할 사람이 없는 경우, 청산인이 해산신청서를 서명할 수 있다. 4) 해산 공고(Schuldenruf) 매우 중요한 절차로 청산인이 스위스 상업청 관보(SHAB)에 기업의 해산사실을 3일 연속으로 공지해야 한다. 공지를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해서 알리고, 채권자들에게 1년 이내 권리를 주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많은 채권자들은 SHAB를 정기적으로 구독하거나 별도 기관에 SHAB의 구독을 위탁한다. 5) 청산 과정(Verwertung) 이 단계가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며, 여러 해가 소요될 수 있다. 청산인은 자산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채무 내역을 반영한 채무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청산인은 해당 기업의 현존사업을 종결시켜야만 한다. 채권 변제가 잔여 재산의 처분으로도 안될 경우 청산인은 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판사는 파산을 선언한다. 채무 변제 후 자산이 남아있을 경우 청산인은 이를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재단의 경우 자산이 남을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6) 상업등기부 기록 삭제(Lschung aus dem Handelsregister) 세 번째 청산 공시 후 최소 1년이 지나고 청산과정이 다 완료되면 청산인은 상업등기소에 회사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청산과정이 다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업등기부에서의 기록삭제는 불가능하다. 상업등기부에 송부하는 모든 서한에 회사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청산과정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상업등기소 홈페이지) https://www.shab.ch/#!/gazette (파산/해산공고 내역 검색 홈페이지) https://www.shab.ch/#!/search/publications?filterId=c902f0e8-4589-11e9-8c7e-0050569de354 청산비용은 회사의 유형, 청산 유형(파산 혹은 자발적 청산), 해당 칸톤 정책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21년 12월 기준 가장 최신 통계인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의 총인구 수는 2020년 기준 867만 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51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실업률은 2021년 기준으로 3.0%로 코로나19로 인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64세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2019년 기준 1인당 명목 GDP가 8만 4천 달러(2021.12.월 스위스경제사무국 최신자료)를 상회하는 등 경제규모는 작은 편이나 구매력이 뛰어난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원 : 스위스 통계청, 스위스 경제 사무국 통합, Trading Economics>

소비 성향

일반적으로 현지 소비자 및 바이어들은 제품 구매 시 고품질, 세련된 디자인,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엄격히 점검한 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스위스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성향과 엄격한 기준을 갖춘 자국 제품의 품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한국 제품이 시장 진출 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친환경 및 윤리경영이 전 분야에 걸쳐 제품구매의 고려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은 환경 친화성 및 그린/윤리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유기농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두 배 이상 비쌌어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콤프(Coop), 미그로(Migros)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이 앞다투어 자체 유기농 제품을 생산 확대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 제품의 경우 Fair trade(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할 정도로 환경 및 윤리경영을 중요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민간소비 중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 비중은 식품 2.8%, 공산품 16.9%이다. 온라인 시장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소비자 중 83%가 구매 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 구매 및 ROPO(온라인 조회/오프라인 구매)를 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가 소비 패턴에 끼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성장 속도와 비중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 19로 인한 3개월의 락다운 기간 동안 전체 소비자 중 37%가 매장 방문을 줄이고 온라인 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연 2회 세일시즌이 있는데, 여타 서구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소비 시즌이고(완구류의 경우 연간 매출의 45%가 이때 집중), 6~7월 하계 세일도 이월상품 위주로 진행한다. 2015년부터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가 현지에도 유행하기 시작하여 11월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할인이 계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단, 2020년은 예년보다 수요가 위축되었는데, 현지 수입 및 유통업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용 소비재 물량 확보는 이미 9월에 다 이뤄지는데, 2020년 7월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주요 소매업체들이 크리스마스용 제품 구매에 소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실제, 2차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0월 29일부로 보건 규칙을 강화하여 사실상 2차 락다운에 돌입하였고 그 영향으로 2021년 1분기 소비자 지출이 약 120억 프랑 감소하였다.

2021년 6월, 스위스는 2020년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회복되며 개인소비가 전년대비 3.9%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하계휴가 이후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자 스위스 연방정부가 실내활동 시 백신증명서 혹은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규 규제를 도입하여 이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2021년 12월, 2021년 개인소비 전망치를 6월 전망치보다 1.3%p 감소한 2.6%로 발표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연방정부는 예상보다 2022년 경제 성장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현지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인지도가 확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스위스 대형유통매장에서 한국산 라면, 김 등이 팔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유통채널인 미그로와 콥 매장에 입점하여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은 인지도가 최근 급상승한 제품으로, 주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웹사이트(coree.ch, nisha.ch, booon.ch)들이 생겨났다.

삼성 및 현대차의 경우 고품질을 중요시하는 까다로운 스위스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까지 SUV만 판매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6일에는 현대 자동차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 10대를 선적해 스위스로 수출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우리나라 업체 제품은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지만, 최근에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스위스의 보수적인 문화에 대응하지 못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현지 업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끈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바이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기업이 스위스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결정 시, 구두 의견교환 내용 관련해서 메일로 정리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팅 전에는 바이어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며, 넥타이는 기업 문화에 따라 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름에 미팅할 시에는 반소매셔츠는 삼가는 것이 좋다. 비즈니스 진행 중에 사전 정보 요구, 긴 검토 시간, 상대적으로 적은 MOQ 등이 초기 거래 시작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활절 전후로 상당수 기업이 1주일간 휴무에 들어가므로 해당 기간 중 출장 시에는 상담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여름 하계기간에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휴가를 떠나 비즈니스 비수기이며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는 성탄절 연휴로 역시 비즈니스 상담이 어렵다. 바이어가 휴가 중에 업무대행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간의 진행사항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를 대비해 바이어의 휴가 및 부재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스위스 기업은 우리 업체 제품소개서가 산만하고 고객의 주목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언급했다. 스위스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위스식 3단계 제품 소개서(유럽 대부분의 나라도 같을 것으로 예상됨) 제작이 필요하다.

◦ 1단계 (의사 타진용)

1단계 제품 소개서는 A4 한 장짜리가 적당하며 전체 제품을 종류별로 묶어 사진을 나열하고 특징을 설명한다. 일단 한눈에 들어와야 하며 간단명료해야 한다.

한편 고객과의 첫 접촉 시에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제품 사진을 중심으로 꾸민다. (회사 이력은 물론이고, 생산업체 일 경우는 반드시 생산자라는 표기를 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스위스 바이어들은 우리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고 생산자와 유통상을 잘 구별하지 못했으며 홈페이지가 대부분 지나치게 화려해 비교적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반응했다)

◦ 2단계 (관심 고객 확보용)

2단계 제품소개서는 제품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관심 고객용으로 주로 우리 업체들이 사용하는 카탈로그와 그 형태가 일치한다. 제품 종류별로 사진을 위주로 나열하고 간단한 설명과 제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관심 고객을 일일이 방문해 샘플을 보여주기 어려워서 제품 사진이 매우 중요하다.

◦ 3단계 (브로슈어 및 샘플 제공)

1·2단계를 통해 고객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제품이 선택되면, 3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의 소개서와 샘플이 필요하다. 마케팅 담당자가 기술적인 상세 부분을 숙지할 수 없으므로 제품별로 복사용지 한 장 분량의 카탈로그가 필요하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2단계(잠재 고객 확보용) 소개서를 1단계(의사 타진용) 소개서 대신 사용하고 있어, 최초 접촉 시 비용손실이 크다. 비용절감을 위해 단계 제품소개서의 대용으로 제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계 제품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상담은 화상상담으로 대체되고 있다. 대면상담이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스위스 연방정부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모든 근로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인을 만날 때 그들의 성격,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스위스인이 독일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독일인과 똑같이 대한다면 상당한 실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인은 독일인에 비교되는 것을 매우 불쾌해하므로 독일과 비교하는 일은 금물이다. 특히 스위스와 독일인 관련 유머는 삼가는 것이 좋다. 스위스인은 일반적으로 쉽게 친해지지 어렵지만, 독일 등과 비교할 시 융통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나 본국과는 억양이 달라 사투리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언어를 화제로 할 시 언어의 다양성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 대화 주제로서는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 Pestalozzi, 세계 최고 명품시계의 산지, Made in Switzerland으로써 세계인의 간식 초콜릿, 스위스 아미 나이프(Swiss Army Knife), 로저 페더러(테니스), 알프스 산맥의 명소 체르마트, 한국에서도 유명한 제약회사 노바티스 등을 주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접대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는 비즈니스에서 서로 거리를 유지하며 객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통상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작은 선물(영문 한국 관광 가이드, 홍보 책자, 소형 명함함)이 미팅 시에 유용하며, 그 외는 서로의 식사문화를 존중하는 오찬 초대와 효과적이다. 만찬에는 술이 접대 될 수 있으며 근무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스위스의 분위기 때문에 저녁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우리 업체가 접대를 받을 경우도 소규모 선물이나 오찬 접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만찬 접대 등을 희망 시 업체에 따라서는 불쾌감을 표출할 수도 있다. 굳이 저녁에 접대하려면 가급적 평일을 택해 상대방의 의중을 살핀 후 초대 희망 바이어가 이를 기꺼이 수용할 경우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초대할 수 있다. 무역관 경험으로는 스위스 바이어들이 통상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 참고: 가벼운 대화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

◦ 윌리엄텔(빌헬름 텔)

윌리엄텔(빌헬름 텔) 14세기 초반 스위스 칸톤 우리(Uri)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영웅이다. 뛰어난 실력을 지닌 석궁 명인으로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지배자가 고투리를 잡아, 그에게 가족의 머리에 얹은 물건을 과녁으로 화살을 쏘게 했다. 활의 명인은 시련을 이겨내고 과녁을 맞혔다. 이후의 이야기지만, 명인은 첫 번째 화살이 빗나가 가족이 다칠 경우 지배자를 쏘기 위한 두 번째 화살을 준비하고 있었다. 훗날 그 지배자는 활의 명인이 쏜 것으로 여겨지는 의문의 화살을 맞고 최후를 맞는다.

많은 사람이 실존인물로 알고 있지만 가상인물이다. 다만 전설의 내용이 상당히 디테일하여, 그가 사과를 쏜 날짜가 1307년 11월 18일이라는 것까지 알려졌다.

◦ 스위스 아미 나이프(Swiss Army Knife)

본디 스위스 군용 단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빅토리눅스와 웅거사에서 제작하는 다목적 주머니칼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머리글자를 따서 SAK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큰 범주로 스위스 아미 나이프는 멀티툴에 포함되는데, 자체적인 멀티툴을 정식 채용한 군대는 스위스군 외에도 영국군, 러시아군이 있다. 다만,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크게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대표적인 멀티툴 나이프가 되었다. 도구들의 열처리가 잘 되어있고, 도구를 고정해주는 스프링의 장력과 같은 세세한 부분에서 마무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2005년에 빅토리눅스사가 웅거를 인수했지만 웅거의 브랜드 및 제품군은 계속 유지하였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는 품질 관리를 위해 모든 제품이 스위스의 슈비츠(Schwyz)시에서 제조되고 있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Digitec Galaxus (www.digitec.ch) ○ 개요: 스위스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매업체로 독일어 및 프랑스어 사용지역에서 온라인 상점과 10개의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지 대형유통망 Migros의 자회사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Digitec Galaxus는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규모는 18억2천6백프랑, 고용인원은 약 13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시계 및 보석류, 반려견 용품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자체 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10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진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공급업체를 선정시에 당사의 이미지에 맞는 제품만을 선별하여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배송은 공급업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게 매력적인 바이어로 뽑히지 않는다. 2) brack.ch(www.brack.ch) ○ 개요: 스위스에서 두번째로 큰 온라인 유통망으로 4,700여개의 공급업체와 협력하며 개인 소비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Brack.ch는 1994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0억 2천 6백만 프랑, 고용인원은 약 92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IT제품(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무용품, 정원용품, 유아용품, 스포츠 및 레저, 장난감, 악기 등 생활소비재를 판매한다. ○ 특징: 스위스 Competec AG의 자회사로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00대 기업에서 뽑힌바 있다. 3) Microspot(microspot.ch) ○ 개요: 스위스 대형유통망 Coop의 자회사. 온라인 매장 외에 스위스에 2개의 전시실을 보유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Microspot은 1980년에 설립되고 1996년도에 대형유통망 Coop에 의해 매각. 2020년 기준 매출 3억 3,400만 프랑, 고용인원은 비공개 ○ 주요 판매 품목: 장난감, 미용용품, 귀금속, 사무실용품, 정원용품,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 생활 소비재 ○ 특징: 대형유통망 Coop의 450여개 픽업장소와 연결하여 주문한 제품 픽업 가능. 2019년 스위스에서 가장 저렴한 전자제품 소매업체로 선정. 4) Migros Online (shop.migros.ch) ○ 개요: 스위스 대형유통망 Migros의 온라인 플랫폼. 해당 플랫폼을 통해 12,500여개의 제품 판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해당플랫폼은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2억 6천 6백 프랑, 고용인원 331명 ○ 주요 판매 품목: 식품, 음료, 유아용품, 미용, 위생용품, 청소용품, 반려견 용품, 주방용품 등 생활소비재 ○ 특징: 2015년 온라인 주문 후 직접 픽업 시스템 "PickMup"서비스 최초 제공. 2017년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온라인매장 8위 차지. 기존 이름은 Leshop이었으나 2020년 Migros Online으로 명칭 변경. Migros 오프라인 매장에서 맥주와 와인과 같은 술을 판매하지 않는 한편 Migros Online에서는 구매 가능 5) Interdiscount (www.interdiscount.ch) ○ 개요: 스위스 전자 소매 체인. 온라인 매장 외에도 약 180여개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 전자제품 유통망에서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통망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Interdiscount는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11억 스위스프랑, 고용인원 1,714명 ○ 주요 판매 품목: 카메라, 디지털 음악, 전자 청소/주방용품, 게임기 등 전자기기 판매 ○ 특징: 현지 대형유통망 Coop의 자회사. 유명브랜드 제품부터 무명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판매. 자체 브랜드 Intertronic 운영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지사화 사업 성공사례(무선 트랙터)

스위스 바이어 P사는 농업에 필요한 장비, 기계 등을 수입, 유통하고 있으며 주로 유명 글로벌사의 제품들을 취급하는 기업이다. 취리히 무역관은 기존의 트랙터와는 다른 무선 트랙터를 생산하는 국내기업 L사를 지사화 사업을 통해 바이어에 소개했다. 바이어는 첫해에는 국내기업 제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취리히 무역관은 바이어의 규모와 판매망을 바라보고 꾸준히 신제품을 소개하고 개발 중인 제품(배터리) 등을 어필하며 관심을 유도했다.

L사의 지사화사업 이용 2년 차, 바이어는 내부회의를 거쳐 우선 L사의 트랙터 1대를 수입 후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진행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보다 테스트가 지체되기도 하였다. 마침내 2020년 5월 20대(12만 달러) 물량의 오더를 입수, 배송했다.

이는 무역관이 국내기업과 협력하여 정확한 바이어를 타겟, 관심유도를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바이어와 국내기업은 향후 물량증가에 따른 가격 재산정, 생산기간 등 조율하여 50만 달러, 1백만 달러, 2백만 달러, 5백만 달러의 조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스위스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산 트랙터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2) 지사화 사업 성공사례(생활소비재, 침구)

국내에서 이불을 생산하는 N사는 취리히 무역관의 지사화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초반에 주로 이불보를 씌워서 사용하는 현지 문화로 인해 좌절을 맛보았다. 하지만 무역관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아로마 향을 맡을 수 있는 이불이라는 특수성을 부각하여, 바이어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취리히 무역관은 이후 호텔에 침구를 유통하는 바이어와의 컨택에 성공하여 소량이라도 구매하여 제품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바이어의 요청에 대응했다. 세탁 이후에도 향을 유지하는지, 침실과의 향 적합성 등 양사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많은 서류와 테스트를 거쳤다.

마침내 바이어는 2019년 봄 침구 55개(5만 달러)를 주문하였다. 가을에 주로 침구 수요가 많아서 무역관은 여름에 제품이 도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사를 지원했다. 침구 주문 후에 다음 신제품으로 모기퇴치, 항바이러스 소재를 개발, 납품에 합의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3) 한류에 힘입어 한국 화장품 스위스 최대 백화점에 입점 (화장품)

스위스 최대 백화점 체인 마노르(Manor)에 우리 중소중견기업 화장품이 최초로 입점했다. 마노르는 스위스 최대 백화점 프랜차이즈로 연간 매출액은 25억 스위스 프랑(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2019년 4월 25일 스위스 수도 베른에 마노르의 69번째 지점 신규 오픈에 맞춰 상설 한국 화장품관이 최초로 개설되었다. 한국화장품관에는 스킨 케어 및 마스크팩을 중심으로 10개 국내기업 브랜드가 입점했다. 보수적인 스위스 시장에서도 K-뷰티가 현지 뷰티업계 트렌드의 중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KOTRA는 2017년부터 K-뷰티 판촉행사 개최 및 현지 백화점, 대형유통망 화장품 벤더 발굴에 집중했다. 2017년 9월에 현지 벤더, 화장품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유럽 내 K뷰티 트렌드와 한국화장품산업 세미나'를 개최했고, 2018년 9월에는 스위스 2대 화장품 유통업체인 탄너(Tanner)와 함께 K-뷰티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탄너의 CEO는 "젊은 색조 메이크업을 강조하는 타 유럽국가와 달리 스위스 소비자는 옅은 화장과 스킨케어를 중요시 하므로 K뷰티는 스위스시장과 궁합이 잘 맞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스위스 제2위 백화점인 글로부스(Globus)와 스위스의 아마존(Amazon)이라 불리는 스위스 제1위 온라인 소매업체인 갈락수스(Galaxus)에도 진입했다. 현지 최대 백화점 진입에 성공했다는 것은 K-뷰티가 아는 사람만 아는 틈새시장에서 주류 상품으로 격상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4) 무역사절단 성공사례 (식품)

2019년 무역사절단으로 스위스를 방문하게 된 음료 기업 O사는 2014년에도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하여 여러 스위스 바이어와 상담을 하였으나 수출성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5년 만에 다시 스위스를 다시 방문하여 바이어와 상담회를 했으며 이번 상담에서는 국내기업이 자사 제품의 장점에 대한 설명보다는 바이어가 제품을 시음해보고 평가해주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다.

특히 스위스의 소규모 시장 특성상 소량 거래이면서도 독일어로 제품을 표기해야 하고 기존 음료에 들어가는 설탕 함량을 줄이는 등 번거로운 사항들을 요청하여도 국내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줌으로써 무역사절단 참가 2개월 만에 스위스로의 첫 수출을 성공시켰다.

2014년에 참가하였을 때와는 다른 자세로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바이어와의 신뢰가 쌓였고 비록 소량 이지만 바이어의 첫 샘플 오더 이후 두 번째 오더로 이어져 스위스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리히 무역관에 서도 국내기업의 스위스 시장진출 확대를 위하여 지사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우리나라와 스위스 간에는 1979년 6월에 일반 사증 면제협정이 체결됐다. 따라서 3개월(90일) 미만 체류로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체류 시 또는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 하고자 할 때에는 스위스 연방 이민청의 거주허가, 칸톤(우리나라에 '도'에 해당) 노동청의 노동허가, 칸톤 이민청의 거주허가,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장기체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 체결을 하지 않았기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없다. 또한 스위스는 취업비자는 없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다른 비자를 찾아 입국한 후 현지의 회사와 접촉을 해보거나 국내에서 현지의 회사에 취업한 후, 스위스에 들어오는 방법을 추천한다.

EU 및 EFTA 국민은 6월 15일 이후로 이동이 허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제3국의 경우에는 현재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에 한해 입국이 가능하다. 연방정부는 7월 20일부로 조치가 완화되어 한국인은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스위스로 단기 방문 시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180 이내 최대 90일간 체류 가능하다. 단, 한국인이라도 한국을 포함한 입국 가능 비 쟁겐 국가 이외 다른 나라(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체류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스위스 미부자 입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유지를 통해 스위스로 입국할 시에는 반드시 경유지 관할 공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021.12.04 (토)부터 스위스 보건청은 변이발생국 입국 금지 리스트 운용을 중단하고 스위스에 입국하는 만 16세 이상의 모든 입국자에게 72시간 이내에 검사된 코로나바이러스 PCR 테스트 또는 24시간 이내에 검사된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는 출발국가 및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오미크론 변이 위험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만 6세 이상부터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 오미크론 변이 위험 국가 리스트: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남아공

* 테스트지 제출 면제 대상(위 리스트를 제외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만 16세 미만, 단순 경유자, 의료적 사유로 긴급하게 스위스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의료 증명서 소지자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입국 규제가 자주 변동하고 있으니, 스위스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위스 연방정부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대사관에 문의를 하고 입국준비를 해야한다.

1) 허가의 종류

◦ L 허가증(Permit L) - 단기 거주 허가서로 최대 1년간 스위스에 체류할 수 있다. L 허가는 고용 계약 조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1년 더 연장될 수 있지만 동일한 고용주가 계속해서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 B 허가증(Permit B) - 1년 동안 유효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연장할 수 있는 초기 또는 임시 거주 허가. 쿼터* 기준으로 발행되며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다. B 허가의 경우 대부분 허가를 해준 Canton(미국의 주와 같은 개념) 밖으로 이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쿼터 : 현재 EU/EFTA 외에 제 3국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8,500명의 비자를 제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이 중 장기 체류증(Permit B)이 4,500명, 단기 체류증(Permit L)이 4,000명이다.

◦ C 허가증(Permit C) - 스위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기 허가증. 영주권으로 불린다. 미국과 캐나다인들은 5년만 거주하면 C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스위스인과 혼인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미국인이거나 캐나다인이 아니더라도 5년이면 C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 G 허가증(Permit G) - EU/EFTA 회원국에 거주하면서 스위스에서 일하는 국경 간 통근자에게 발행해주는 허가증이다.
- F 허가증(Permit F) - 자국 귀환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게 국제법 의무, 인도주의적 사유 또는 실질적인 장애로 수행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해당 외국인을 추방치 않을 때 주는 임시 허가증이다.
- N 허가증(Permit N) - 스위스에 망명 신청을 한 사람에게 허가해주는 망명 허가증이다.
- Ci 허가증(Permit Ci) - L, B, C, G 허가증을 가진 가족 구성원의 자녀(21세 미만)의 스위스 내의 취업, 구직 활동을 허락해주는 허가증이다. 21세 전에 해당 허가증을 갖고 입국하여 취업한 후, 21세 이상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현지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장기 체류와 관련하여 스위스의 비자 발급은 EU국가와 Non-EU국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Non-EU/EFTA국가의 인력을 고용할 경우 노동 허가서와 함께 특별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 조건은 통상적으로 기존 취업 쿼터, 학업 수준 및 경력에 달려 있으며 스위스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비자, 비즈니스 여행 혹은 방문객의 신분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방문 전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취업이 되면, 고용주는 스위스에서 노동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당사자는 자국에서 입국비자를 신청한다. 고용주가 노동 허가를 신청하게 될 경우 고용주는 아래 사항을 이민당국에 증명해야 한다.

노동허가를 받고 배우자와 함께 스위스에 살기를 희망할 경우에 배우자는, 단기/장기 체류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현지언어 구사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독일어의 경우에는 A1 레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사전에 이를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비자 신청하기에 앞서 현지 어학원 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비자 승인을 득한 후, 1년 내 자격증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2) 증명 사항

- 왜 스위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가?
- 왜 EU/EFTA 회원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가?
- 고용주가 non-EU/EFTA국가의 시민을 고용할 경우, 많은 변호사 비용과 함께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대부분 스위스 자국민, EU/EFTA 회원국 시민 혹은 이미 거주 허가증(Permit B 혹은 C)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를 선호하게 된다. 단, 그 분야에서 저명하거나 산업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력을 보유하여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기업에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5년 혹은 10년 이상 스위스에서 거주한 사람만이 자영업자 신분으로 스위스에 정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스위스 시민과 결혼한 경우나 당사자의 사업이 스위스에서 일자리 창출 혹은 다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학생비자

EU/EFTA 국가들의 경우 쎅겐조약으로 인해 절차가 간편한 편이다. 지원자는 스위스에 도착 후 14일 안에 거주 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건강 보험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학생은 자신이 풀타임으로 공부하리라는 것과 공인된 대학교(University)나 인증된 전문대/단과대(College)에 등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Non-EU/EFTA국에서 온 학생들의 경우, 자국에서 스위스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지원서에는 반드시 출석할 학교 또는 기관의 증명서, 학비 납부 증명서 및 학업 중 지원 수단, 학생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스위스를 떠나겠다는 서약서 및 이력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스위스 당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은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언어 시험을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면세품 보유 한도

개인용품으로 300스위스프랑 이내에 한국과는 달리 농산물, 식품 등도 반입이 가능하다. 항목별 무게 제한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1인 기준).

- 육류 및 육류 가공품 1kg
- 곡물/채소 20kg
- 사과/배 과일류 20kg
- 버터 1kg
- 식용유, 요리용 지방, 마가린 등 5kg
- 18도 이하 알코올음료 5L
- 18도 초과 알코올음료 1L
- 담배류 250 개비

(초과 항목별 부과되는 세금은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

<https://www.ezv.admin.ch/ezv/de/home/information-private/reisen-und-einkaufen--freimengen-und-wertfreigrenze/einfuhr-in-die-schweiz/freimengen--lebensmittel--alkohol-und-tabak.html>

링크가 안될 경우 : Google에서 "einfuhr in die schweiz EZV" 작성 후 찾기. www.ezv.admin.ch 으로 시작하는 링크 클릭. 영어로 변경 가능)

2) 외화 보유 신고

외국인이 출·입국 시 10,000스위스프랑/10,000유로 이상 보유할 경우 자금 세탁, 테러단체 자금 조달을 예방하기 위해 스위스 관세청에 서명으로 신고하게 되며, 해당 기록은 관세청 정보 시스템에 남게 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스위스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41 (0)31 356-2444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Kalcheggweg 38, 3006 Bern,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ch-ko/index.do
비고	현지 내 한국 홍보, 총무와 주재국과 국방외교 및 협력 지원. 여권, 비자발급 안내 공휴일/긴급연락처: +41(0)79 339 581/+41(0)79 897 4086(민원 및 사건사고 담당 영사)

○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전화번호	+41-22-748-0000
주소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 Avenue de l'Ariana, Case Postale 42, 1211 Geneva 20,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ch-geneva-ko/index.do
비고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유엔구주사무소(UN, Office at Geneva) 및 여타 국제기구와 관련된 업무 담당 긴급연락처: +41-79-446-1370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스위스 연방 정부(Authorities of the Swiss Confederation)

전화번호	+41 584 62 21 11
주소	Schweizerische Bundeskanzlei, Bundeshaus West 3003 Bern
홈페이지	https://www.admin.ch/gov/en/start.html
비고	현지어명: Der Bundesrat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처리, 정부 정책 계획 및 지원, 연방 행정부 관리, 연방의회에 연방법 및 연방 결의 제출

○ 스위스 외교부(EDA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전화번호	+41 80 024 73 65
주소	Effingerstrasse 27, 3003 Bern
홈페이지	https://www.eda.admin.ch/eda/de/home.html
비고	현지어명: Eidgenoessisches Department fuer auswaertige Angelegenheit 외교를 통해 각국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이 목적. 해외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

◦ 스위스 경제사무국(SECO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전화번호	+41 58 462 56 56
주소	Holzikofenweg 36, 3003 Bern
홈페이지	https://www.seco.admin.ch/seco/de/home.html
비고	현지어명: Staatssekretariat fuer Wirtschaft 경제 상황을 조사, 경제 정책 계획을 수립, 일자리 정책을 세우며 대한민국의 기획 재정부에 준하는 곳.

◦ 스위스 무역 투자청(S-GE Switzerland Global Enterprise)

전화번호	+41 44 365 51 51
주소	Stanphenbachstrasse 85, 8006 Zurich
홈페이지	https://www.s-ge.com/de
비고	스위스 경제사무국 산하의 조직으로 스위스의 무역관련 업무를 지원함.

◦ 스위스 일간지(Neue Zuericher Zeitung)

전화번호	+41 44 258 10 00
주소	Falkenstrasse 11, 8021 Zurich
홈페이지	https://www.nzz.ch/
비고	업무 설명: 스위스 정치, 스포츠, 기술, 경제 관련 일간지

◦ 스위스 일간지(Tages Anzeiger)

전화번호	+41 44 248 40 30
주소	Werdstrasse 21, 8021 Zurich
홈페이지	https://www.tagesanzeiger.ch/
비고	스위스 정치, 기술, 스포츠, 경제 관련 일간지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93 CHF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7.210
2	식품	비빔밥	1인분	27.92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31.27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11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7.35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59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850
8	의료	항생제	12정	29.88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4.14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4.14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6.36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남성)	1회	39.11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89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50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6.220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9.19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24.400
18	임금	보편적 최저임금	월급	4324.36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350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750

<자료원 : 중앙은행, 대형 유통망 및 기타 검색 통합>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스위스 프랑으로서 약칭은 CHF이며 1스위스 프랑은 100라펜(Rappen) 이다. 지폐에는 10, 20, 50, 100, 200 및 1,000 스위스 프랑이 있으며, 주화에는 5, 10, 20 라펜 및 1/2, 1, 2, 5 스위스 프랑이 있다. 스위스는 EU 가입국이 아니나 유로화는 슈퍼 및 관광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된다. 그러나 거스름돈은 스위스 프랑으로 받게 되고 환율도 높지 않으므로 스위스를 방문할 경우 소액은 스위스 프랑화로 사전에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환전방법

공항 및 기차역, 시내 중심가 등 주요 지역에 은행이 있어 쉽게 환전이 가능하며, 각 철도 역의 철도공사(SBB)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수수료와 환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호텔에서 환전이 가능하나 통상 6~10% 정도 불리한 환율이 적용된다. 은행을 통해서 환전할 때에는 환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금융업이 발달한 스위스답게 신용카드의 사용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다만 작은 가게의 경우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결제 시 카드로 결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후 단말기에 직접 카드를 삽입하거나 인식시킨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 후 영수증에 서명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카드 뒷면 서명란에 있는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두는 편이 좋다. 또한, 카드에 적혀있는 소유자 이름과 사용자 이름이 다른 경우 사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전반적으로 계획 신도시가 아니라 기존의 도시가 발전한 형태를 취하므로 국내에 비해 도로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대중교통 체계가 잘 발달하여 있고 각 교통편이 시간을 잘 맞춰 오는 편이나, 교외 및 지방으로 갈 경우 배차 간격이 늘어나므로 자가운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운전 시 출퇴근 시간인 7~8시, 17~19시에는 교통정체가 발생하며 도심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 주변의 고속도로도 막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외 시간대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운전 중에는 도로 곳곳에 속도 제한 표지판에 주의하여야 하며, 한국과 달리 내비게이션이 과속카메라를 미리 안내해주지 않기 때문에 과속은 금물이다. 만약 적발될 경우 범칙금 안내 우편물이 한국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여행객의 신분이라도 현지의 교통 문화를 잘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버스

버스 및 전차는 자동티켓 판매대에서 승차 전에 티켓을 구입하며, 취리히의 경우 단기구간(Zone I)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이동 가능, 다

첫 정거장 탑승 가능) 편 도는 2.70스위스 프랑, 일반구간(Zone 1~2, 취리히 시내 이동 시 이를 활용하면 됨) 4.50스위스 프랑, 1일 티켓은 8.80스위스 프랑 선이다. (티켓은 구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취리히 교통조합(www.zvv.ch)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동일한 티켓으로 버스와 전차, 보트 등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자동 티켓 판매대에서 구입하는 일부 티켓은 판매대에서 스탬프를 취득해야만 승·하차가 유효하다. 대중 교통수단을 탑승할 때는 특별한 검사 없이 탈 수 있어 자물에 맡기나 수시로 불시점검이 있으며, 적발 시 80스위스 프랑의 벌금 및 기타 업무 비용이 부과된다. 시내버스는 새벽 6시경부터 새벽 1시경까지 운행하며 새벽 시간대에는 심야버스 노선이 별도로 존재한다.

택시

택시의 경우 회사별, 택시 종류(공항, 일반)별, 도시별로 요금이 달리 운영되나 기본요금이 8스위스 프랑이며, km당 3~4스위스 프랑이 추가된다. 승객 수와 소지 물품의 양에 따라 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 시내 주요 지역별로 설치돼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주요 콜택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취리히

- 회사명: Zuerich Taxi 24
- 전화번호: +41 44 321 28 28
- 홈페이지: <https://zuerich-taxi24.ch/>
- 주소: Unterfeldstrasse 15, CH-8050 Zürich

○ 바젤

- 회사명: Taxi zentrale AG
- 전화번호: +41 61 690 70 22
- 홈페이지: <https://www.taxi-zentrale.ch>
- 주소: Leimgrubenweg 16, 4053 Basel

○ 제네바

- 회사명: Taxi-phone
- 전화번호: +41 22 331 41 33
- 홈페이지: www.taxi-phone.ch
- 주소: Rue des Rois 15, 1204 Geneva

기타 교통수단

취리히 기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버스, 트램(전차), S-bahn(기차)이며 이용 방법은 모두 동일하다. 시외로 이동할 경우 버스나 S-bahn을 주로 이용하게 되며 시내 이동은 버스와 트램으로 대부분 가능하다.

티켓은 정류장의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 티켓 구매 시 목적지를 확인하여 구간별 티켓을 실수 없이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보트의 경우 관광상품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며 다른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구간별 요금이 책정된다. 취리히의 경우, 유명한 관광지답게 관광버스가 운행 중이다. 중앙역에서 출발하는 시내 관광과 오페라하우스에서 출발하는 근교관광 버스가 있다.

시내 관광버스 운행은 약 2시간 소요되며 요금은 20프랑이고 근교 관광버스의 운행은 약 3시간이며 요금은 30프랑이다.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6월 8일 이후로 전면 정상 운행되었다. 연방정부는 2020년 7월 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2021년 현재까지 이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다. 통신

핸드폰

출장 시에는 스위스 현지에서 판매 중인 선불 유심을 사는 것이 유용하다. 통화량,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차등 된 가격의 옵션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용량에 따라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이 쉽고 별도의 해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출장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내 곳곳에 Swisscom, Salt 등의 휴대전화 통신사 매장에서 직접 구입 가능하며 신변 확인을 위해 여권 제시를 요구한다. 비즈니스 업무 차 스위스에 왔다면, 유심을 구매 시 전화통화가 가능한 유심을 사는 게 유용하다. 유심을 결제 후, PIN 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유심의 PIN을 기억해야 한다. 사용 시 스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업무 관련하여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스위스에서 유심을 구매하여 사용한 후, 유럽 내의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해외 로밍 요금이 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에서 해당 유심 카드가 사용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와이파이)

현지 통신회사는 대개 TV, 인터넷, 전화기가 결합된 상품을 주로 제공한다. 대표적인 통신회사로는 Swisscom, Sunrise, Salt, UPC 등이 있다. 인터넷 설치 시 통신사들은 고객들에게 대부분 인터넷+전화기+TV, 인터넷+전화기, 인터넷+TV 등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지만, 인터넷만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신청하면 우편물을 통해 설치 절차를 안내하고 인터넷 모뎀 역시 우편(평균 10일 걸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와이파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공유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공유기가 있다면 별도의 구매 없이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술자의 방문을 원할 경우 미리 방문 약속을 잡고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위스 인터넷 속도는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4위(우리나라는 15위)로 꽤 빠른 편이지만, 산간 지방이 많은 국토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라. 관광명소

◦ 리기산(Rigi)(Rigi)

도시명	Arth
주소	Rigi, 6410 Arth
운영시간	별도 운영시간 없음
휴무일	별도 운영시간 없음
명소소개	스위스 알프스산맥 북동부, 루체른 근교에 위치한 관광명소이다.
비고	전화: +41 41 399 87 87 홈페이지: www.rigi.ch

◦ UN 제네바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도시명	Geneva
주소	Palais des Nations, 1211 Geneva
운영시간	평일 10시~12시, 14시~16시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명소소개	UN의 제네바 사무소로 국제 기구가 모여있는 제네바를 대표한다.
비고	전화: +41 22 917 12 34 홈페이지: www.unog.ch/

○ 융프라우(Jungfrau)(Jungfrau)

도시명	Interlaken
주소	Interlaken
운영시간	별도 운영시간 없음
휴무일	별도 운영시간 없음
명소소개	아름다운 설경으로 잘 알려진 알프스 산맥의 고봉 융프라우(4,158m)는 산악인뿐 아니라 여행자에게도 매력적인 장소다.
비고	전화: +41 33 828 71 71 홈페이지: www.jungfrau.ch

○ 마테호른(Matterhorn)(Matterhorn)

도시명	Zermatt
주소	Zermatt
운영시간	별도 운영시간 없음
휴무일	별도 운영시간 없음
명소소개	높이 4,478m. 프랑스어로는 몽세르뱅(Mont Cervin), 이탈리아어로는 몬테체르비노(Mont Cervino)라 한다. 몬테로사 산맥의 주봉으로, 스위스 쪽의 등산기지 체르마트의 남서쪽 10km 지점에 위치한다. 피라미드형의 특이한 산용을 가진 빙식침봉(氷蝕尖峰)으로, 평균경사 45도 안팎의 급한 암벽이 1,500m 이상의 높이로 솟아 있다. 특히 스위스 쪽의 조망이 수려하다.
비고	전화: +41 27 966 81 00 홈페이지: www.zermatt.ch/matterhorn

○ 스위스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Zurich)(National Museum Zurich)

도시명	Zurich
주소	Museumstrasse 2, 8021 Zuerich
운영시간	화~일: 10~17시 목요일: 10~19시
휴무일	월요일
명소소개	스위스를 대표하는 국립 박물관이다. 박물관 건물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고	전화: +41 44 218 65 11 홈페이지: www.nationalmuseum.ch

마. 식당

- 현지식당

○ 발리저 칸네(Walliser kanne)

도시명	Basel
전화번호	+41 61 261 70 17
주소	Gerbergasse 50, 4000 Basel
가격	30달러
영업시간	11시 30분~24시
휴무일	일요일 및 공휴일
소개	바젤에 소재한 스위스 음식점.
비고	퐁듀, 라플렛 등 스위스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

○ 브라제리셰츠 모우레스에디(Brasserie chez moules-edy)

도시명	Bern
전화번호	+41 31 311 38 93
주소	Baerenplatz 21, 3011 Bern
가격	40달러
영업시간	9~24시
휴무일	크리스마스
소개	베른 소재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비고	홍합스튜가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다고 평가되고 있음.

○ 레스토랑 레스 아무레스(Restaurant led aemurles)

도시명	Geneva
전화번호	+41 22 310 34 42
주소	Rue de soleil-levant, 1204 Geneva
가격	30달러

영업시간	월~금: 9시 30분~23시 토, 일: 11~23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제네바에 소재한 스위스 음식점
비고	퐁듀, 라끌렛 등 스위스 음식과 파스타 등의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식당.

◦ 조이크하우스켈러(Zeughauskeller)

도시명	Zurich
전화번호	+41 44 220 15 15
주소	Bahnhofstrasse 28a, 8001 Zurich
가격	30달러
영업시간	11시 30분~23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소시지, 구운감자 등을 즐길수 있는 식당.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이며, 한국어 메뉴를 제공.

◦ 퐁듀트램(Fonduetram)

도시명	Zurich
전화번호	+41 84 880 18 80
주소	Bellevueplatz, 8001 Zurich
가격	96달러
영업시간	12~22시 예약제 운영, 11월 첫 금요일부터 3월 첫 토요일까지만 운영
휴무일	운영기간 외
소개	스위스의 대표음식인 퐁듀를 트램에서 시내를 구경하며 즐길 수 있는 이색 레스토랑.
비고	가격대는 2인 테이블 기준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

〈자료원 : 각 음식점 홈페이지〉

- 한국식당

◦ 춘희(Chunhee)

도시명	Bern
전화번호	+41 31 311 26 96
주소	Muenstergasse 39, 3011 Bern

가격	20달러
영업시간	화~금요일: 11시 45분~23시 토요일: 18~23시
휴무일	일요일, 월요일
소개	베른 소재의 한식당.
비고	베른 대성당 근처에 위치하여 접근성 용이함.

◦ 서울(Seoul)

도시명	Geneva
전화번호	+41 22 732 46 05
주소	Rue de Zurich 17, 1201 Geneva
가격	25달러
영업시간	화~금요일: 12~14시, 18시 30분~22시 30분 토, 월요일: 18시~22시 30분
휴무일	일요일
소개	제네바 소재의 한식당.
비고	인덕션 그릴 가능, 채식메뉴 제공.

◦ 스틱 푸드(Sticks Food)

도시명	Luzern
전화번호	+41 41 412 28 68
주소	Zuerichstrasse 5, 6004 Luzern
가격	20달러
영업시간	월~토요일: 8시 30분~18시 30분
휴무일	일요일
소개	루체른에 소재한 한식당.
비고	한식 이외에 초밥, 돈가스 등의 메뉴도 있음.

◦ 신라(Shilla)

도시명	Zurich
전화번호	+41 44 431 80 80
주소	Badenerstrasse 505, 8048 Zurich

가격	40달러
영업시간	화~금요일: 12~14시, 18~22시 토요일: 17시~22시 30분 일요일: 17시~21시30분
휴무일	월요일
소개	취리히 소재의 한식당.
비고	주요 메뉴 이외에 삼겹살, 소고기 등의 한국식 불판 구이도 가능함.

◦ 미소가(Misoga)

도시명	Zurich
전화번호	+41 44 422 99 90
주소	Drahtzugstrasse 5, 8008 Zurich
가격	30달러
영업시간	월~금요일: 11시 30분~14시, 17시 30분~22시, 토요일: 17시 30분~22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취리히 소재의 한식당.
비고	불고기메뉴를 씬으로 즐길 수 있음.

◦ 아카라카(Akaraka)

도시명	Zurich
전화번호	+41 43 538 30 85
주소	Bäckerstrasse 30, 8004 Zürich
가격	30 달러
영업시간	월~금요일: 11시 30분~14시, 18시~23시 30분, 토요일: 18시~23시 30분
휴무일	일요일
소개	취리히 소재의 한식당
비고	사장님 성악 전공. 해물파전, 닭강정 등 다양한 메뉴 판매

◦ 미니네 스시(Minine Sushi)

도시명	Zurich
전화번호	+41 44 260 89 29
주소	Zeltweg 12, 8032 Zürich

가격	30 달러
영업시간	월~금요일: 11시 30분~14시, 17시 30분~22시, 토요일: 17시 30분~22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한국인이 운영하는 취리히 소재의 일식당
비고	초밥, 돈까스 등 다양한 일식 메뉴를 즐길 수 있음

〈자료원 : 각 식당 홈페이지 통합〉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바젤 스파렌토르 호텔(Hotel Spalentor Basel)

도시명	Basel
주소	Schoenneinstrasse 1, 4056 Basel
전화번호	+41 61 539 19 26
홈페이지	https://hotelspalentor.ch/
숙박료	120달러
소개	바젤대학 주변 소재, 대중교통 접근 용이
비고	4성급

○ 이스트웨스트 호텔(Eastwest Hotel)

도시명	Geneva
주소	Rue des paquis 6, 1201 Geneva
전화번호	+41 22 539 16 97
홈페이지	https://www.eastwesthotel.ch/en/
숙박료	200달러
소개	제네바 중앙역에서 도보 이동 가능, 호수 인접
비고	4성급

○ 크라운 플라자(Crown plaza)

도시명	Zurich
주소	Badenstrasse 420, 8040 Zurich

전화번호	+41 44 404 44 44
홈페이지	https://cpzurich.ch/
숙박료	150달러
소개	취리히 레치그룬드 주변 소재, 수영장, 실내 사우나시설 제공
비고	4성급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베른 백패커 호텔 글로케(Bern Backpackers Hotel Glocke)

도시명	Bern
주소	Rathausgasse 75, 3011 Bern
전화번호	+41 31 311 37 71
홈페이지	http://www.bernbackpackers.com/
숙박료	40달러
소개	베른 소재의 게스트하우스
비고	구시가지 내 소재, 중앙역에서 도보 10분

○ 제네바 호스텔(Geneve Hostel)

도시명	Geneva
주소	Rue rothschild 28, 1202 Geneva
전화번호	+41 22 732 62 60
홈페이지	https://genevahostel.ch/en/
숙박료	40달러
소개	제네바 소재의 게스트하우스
비고	제네바 호수 도보 5분, 공용 주방 있음

○ 게스트하우스 줌 구텐 글록(Gasthaus zum Guten Glueck)

도시명	Zurich
주소	Stationsstrasse 7, 8003 Zurich
전화번호	+41 43 540 72 99
홈페이지	https://www.zumgutenglueck.ch/de/

숙박료	90달러
소개	취리히 소재의 게스트하우스
비고	기차역 인근 소재하여 중앙역 및 시내 접근 용이

〈자료원 : 각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사. 치안

치안상황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 특별여행주의보(2020년 3월 23일 ~ 별도 공지 시까지)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은 안정된 정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치안 상태는 인근 유럽 국가들보다도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공항, 기차역 등 군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유럽 국가 또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원정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쪽 프랑스어권 일부는 (제네바, 로잔 일부 구역) 현지 거주민들도 저녁에는 가능한 외출을 삼갈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20년 10월 28일, 재확산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연방정부는 신규 보건 위생 규칙을 발표하고 사실상 락다운을 발표하였으나, 백신 접종률 증가 및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2021년 4월 19일부로 코로나19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발표하였다. 5월 26일 기준, 레스토랑 및 바의 테라스(야외시설)은 운영 가능하며,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은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 외 레저시설 또한 제한된 인원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연방정부는 여름까지 백신 접종 희망자의 접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2021년 5월 26일, 연방정부는 백신접종으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따라서, 5월 31일부로 모든 식당이 조건부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 이벤트 개최 시에는 최대 실내 30명 실외 50명, 공공 이벤트 개최시 최대 실내 100명 실외 300명 수용 등 대대적인 완화를 발표하였다. 단 완화 이후에도 안전거리 유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이용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년 9월 스위스 연방정부는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9월 13일부로 모든 실내활동 참여 시에 코로나19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2022년 1월 2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백신 완전접종자, 코로나19 완치자 혹은 PCR 테스트 음성판정 해당자를 대상으로 증명서가 발급된다. 단 16세 미만이나, 종교의식, 정치행사, 30인 이하의 훈련 및 공연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에는 당사자에게는 100 스위스프랑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장 혹은 주관자에게는 벌금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17일, 연방정부는 규제 강화를 발표하였다. 바, 혹은 접촉이 불가피한 스포츠 운영시설의 경우 백신접종 4개월 경과한 경우 반드시 PCR 혹은 신속진단테스트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며, 단체활동 10명으로 제한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 되었다.

2021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스위스 내 코로나19 일일확진자 수는 8,167명이고 사망자는 32명이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일반적으로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보행 안전 수준이 높은 편이나 트램, 버스, 자전거 등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전하는 경우 트램과 버스의 전용차선, 회전교차로 등에 유의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에게 먼저 양보해주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건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분쟁 없이 서로 연락 정보를 교환한 후 보험사를 통해 사후 처리하는 편이고 현장에서 경찰이나 보험사를 부르거나 당사자 간 긴 대화는 나누지 않는 편이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분실 시 대사관에서 긴급 단수여권이 발급 가능하며 여권용 사진 2매와 수수료 15스위스 프랑이 필요하다.

- 대사관 연락처: +41 31 356 24 44 월~금요일 9시~12시, 14시~17시
- 긴급 연락처: +41 79 897 40 86

스위스 열차 내 귀중품 도난 혹은 분실 시 SBB철도청에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 인터넷 분실신고(무료): <https://www.sbb.ch/en/station-services/services/lost-property-service.html>
- 현장 분실신고(유료): SBB 기차역 내 창구에서 분실신고 : 프랑 15
- SBB 전화 분실신고: +41) 0900 300 300 프랑 1.19/분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18
- 범죄 신고: 117
- 응급 의료: 144
- 구조 헬기: 1414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 가능 물량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며 입주자 선별 과정이 까다로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장기 투숙 레지던스 호텔 등 임시숙소를 미리 마련하여 임차주택을 물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특정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원하는 지역, 가격대, 입주 가능 시기를 검색하여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 www.immostreet.ch
- www.homegate.ch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양한 서류(자기소개서, 근무지에 대한 증명, 소득 증명 등)를 요구할 수 있다. 집의 크기는 평방미터나 방의 개수로 표시하며 이 경우 거실도 방 하나로 계산하고 부엌은 0.5로 계산한다. (2.5의 경우 거실 1, 침실1, 부엌 0.5)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는 3개월 전 서면통보 조건이나, 특정 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예:3월, 6월, 9월 등)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전세 개념은 없고 주로 월세 형태이며, 보증금 개념으로 2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비용 등으로 차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기 세척기와 냉장고는 built-in이고 세탁기를 제공한다. 보통 세탁기는 집 안에 있지 않고 지하 등 별도 공간에 위치하며, 경우에 따라 전체 세대 공용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차량 주차장은 같은 건물 내라도 별도 임차 계약을 해야 한다.

상기 "원상복구비용"이 종종 문제가 되므로, 계약 전후 집안의 파손 여부를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전화

스위스콤(Swisscom), 솔트(Salt), 선라이즈(Sunrise) 매장 혹은 케이블콤(Cablecom) 홈페이지에서 유선 및 무선전화 개통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가설에는 보통 1주일 정도가 소요되나, 익스프레스(Express)로 신청하면 신청 1일 안에 통화가 가능하다. 단 익스프레스(Express)신청 시에는 추가 가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 o Swisscom: www.swisscom.ch
- o Salt: www.salt.ch
- o UPC Cablecom: www.upc-cablecom.ch
- o Sunrise: www.sunrise.ch

전압/플러그

230V, 50Hz를 사용하지만, 플러그 모양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국내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댑터가 필요하다. 스위스의 플러그는 통용 J 타입으로 동그란 구멍 3개가 필요하다.

식수

대체로 수질이 좋아 수돗물을 식수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매우 많이 들어 있으므로 생수 구매 또는 정수기 사용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www.autscout24.ch 등 자동차 판매 플랫폼에서 원하는 차종, 연수, 주행거리 등을 확인하고 해당 매장을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잡는다 (반드시 사전에 방문 약속 필요).

딜러와 계약을 진행하며 자동차 보험 가입을 동시에 진행한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돼 있으므로 중고차 구입도 용이하다.

차량가격

현지에서는 완성차가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스위스 물가 자체가 비싸다는 점 등으로 인해 주변국가에 비해 같은 차종의 가격이 1.3~1.5배 정도 비싸다는 평이다. 차량 가격은 온라인 자동차 판매 플랫폼을 통해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스위스 내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입국 후 1년간 운전이 가능하나, 그 이상 체류할 시 스위스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국내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을 받고(현지 영사관), 운전면허증 교환신청서/면허증 원본/번역공증/체류허가증(현지신분증)/시력검사결과를 관할지역 교통청에 제출하면 스위스 면허증을 거주지로 우편 송부해준다. 시력검사에 약 20스위스 프랑, 교통청 신청비용 약 150스위스 프랑이 소요된다.

취리히의 경우 신고 서식(Gesuch Umschreibung ausländischer Führerausweis)을 다음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http://www.zh.ch/internet/sicherheitsdirektion/stva/de/StVAform.html>)

스위스에서 면허를 새로 취득하려는 경우 먼저 6년 이내에 발급받은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과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력검사서가 있어야 한다. 그 이후 신분증과 사진 2매를 지참하여 관할청에 가면 신분 증명을 진행한 뒤 교육면허증을 위한 신청이 완료된다. 교육면허증 신청 후 이론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교육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면허를 발급받은 뒤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면 실제 운전면허를 위한 운전 교육을 받은 뒤 시험을 통해 정식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Kantonal Bank: 지역별로 앞에 이름이 붙으며(ex.Züricher kantonal Bank) 직역하자면 주립은행이다.
- UBS: 바젤과 취리히에 본사를 둔 은행으로 Union Bank of Switzerland의 약자이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다.
- Credit suisse: 취리히에 본사를 둔 스위스 글로벌 금융회사로 서울에도 지점이 있다

계좌 개설방법

UBS,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등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개설한다. 통상 큰 은행일수록 급여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체류증(Ausländerausweis)은 계좌 개설 시 필수 구비사항이다. 최근 불법자금 유통 및 돈세탁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현지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기에 앞서 사전에 현지은행에서 금액과 시기, 국내 은행명 등을 알려줄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International School Basel

도시명	Basel
커리큘럼	만 3~11세, 11~16세, 16~19세별로 각 과정 운영. 국제공인교육과정 IB과정 제공
학비	약 20,000~33,000스위스 프랑/연
홈페이지	https://www.isbasel.ch/index.cfm
비고	바젤 소재 미국계 국제학교. 1979년 개교

o British School Bern

도시명	Bern
커리큘럼	유치원~초등학교 과정. 만 3~12세 등록 가능한 과정 제공
학비	약 20,000스위스 프랑/연
홈페이지	http://britishschool.ch/
비고	베른 소재 영국계 국제학교. 1988년 개교

o Zurich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Zurich
커리큘럼	초중고 12년제 과정 운영. 국제공인교육과정 IB과정 제공
학비	약 30,000~36,000스위스 프랑/연
홈페이지	https://www.zis.ch/
비고	취리히 소재 미국계 국제학교. 1963년 개교

o International School Zurich North(ISZN)

도시명	Zurich
커리큘럼	만 3~18세 등록 가능한 과정 제공. 국제공인교육과정 IB과정 제공
학비	약 14,400~29,000스위스 프랑/연
홈페이지	https://www.zis.ch/
비고	취리히 소재 다문화 주간 학교. 1999년 개교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현지학교

o Freies Gymnasium Basel

도시명	Basel
커리큘럼	유초중고 과정 제공, 중고등학교 통합 6년과정.
학비	약 27,500~30,000스위스 프랑/연
홈페이지	https://www.fg-basel.ch/de/
비고	바젤 소재 사립학교, 1889년 바젤 최초 사립학교로 설립

o Freies Gymnasium Bern

도시명	Bern
커리큘럼	중학교 대비반 및 중고등학교 과정
학비	약 12,000~14,000스위스 프랑/연
홈페이지	http://www.fgb.ch/
비고	베른 소재 사립학교, 1859년 기독교 재단에 의해 설립

o Kantonalschule Zurich Nord

도시명	Zurich
커리큘럼	고등학교 인문계 과정. 과정별 4~6년 과정. 영어/독일어 과정 졸업증 발급
학비	해당 주 학생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www.kzn.ch/cms/
비고	취리히 소재 공립 학교. 해당 주 이외 학생 수업료 발생, 기타 실습비용, 교재비, 현장체험비용 별도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o Inselspital

도시명	Bern
주소	Freiburgstrasse 15, 3010 Bern
전화번호	+41 31 632 21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베른 소재 종합병원
----	------------

◦ Geneva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Geneva
주소	Rue gabrielle perret gentil 4, 1205 Geneva
전화번호	+41 22 372 33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제네바 소재 종합병원

◦ Stadtspital Triemli

도시명	Zurich
주소	Birmensdorferstrasse 497, 8063 Zurich
전화번호	+41 44 461 11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취리히 소재 종합병원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St. Jakob-Park Shopping Center

도시명	Basel
주소	St. jakops-strasse 397, 4052 Basel
홈페이지	https://st-jakob-park.com/
비고	바젤 소재 종합 쇼핑몰

◦ Westside

도시명	Bern
주소	Riedbachstrasse 100, 3027 Bern
홈페이지	http://www.westside.ch/
비고	베른 소재 종합 쇼핑몰

◦ Sihlcity

도시명	Zurich
주소	Kalanderplatz 1, 8045 Zurich
홈페이지	https://sihlcity.ch/
비고	취리히 소재 종합 쇼핑몰

〈자료원 : 각 쇼핑몰 홈페이지〉

- 식품점

◦ New Asia Market

도시명	Basel
주소	Rheinfelderstrasse 1, 4058 Basel
취급 식료품	한국라면 등 아시아 식료품
비고	바젤 소재 아시아 식료품점

◦ Shanghai Asiatische Waren AG

도시명	Luzern
주소	Hirchengraben 43, 6003 Luzern
취급 식료품	한국 식재료 포함 아시아 식료품
비고	루체른 소재 아시아 식료품점

◦ Yumihana

도시명	Zurich
주소	Schuetzengasse 4, 8001 Zurich
취급 식료품	한국 식재료, 라면 등
비고	취리히 소재 아시아 식료품점

〈자료원 : 각 식료품점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 Only Fitness

도시명	Bern
주소	Parkterrasse 14, 3012 Bern

홈페이지	https://www.onlyfitness.ch/
소개	베른 소재 피트니스 센터
비고	베른 중앙역 인접

◦ Piscine de Vernets

도시명	Rue hans-wilsdorf 4, 1227 Geneva
주소	Geneva
홈페이지	http://www.ville-geneve.ch/plan-ville/sports/piscine-vernets
소개	제네바 소재 수영장
비고	실내, 실외, 어린이풀 보유

◦ Migros Fitnesspark Stockerhof

도시명	Zurich
주소	Dreikoenigstrasse 31A, 8002 Zurich
홈페이지	https://www.fitnesspark.ch/
소개	취리히 소재 피트니스센터
비고	스파, 마사지 시설 보유

〈자료원 : 각 시설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Berchtoldstag	2022-01-01	새해
Neujahr	2022-01-02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전일 휴무(취리히 기준)
Osternmontag	2022-04-18	부활절 연휴
Sechselfeiertag	2022-04-25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오후 휴무(취리히 기준)
Tag der Arbeit	2022-05-01	노동절
Auffahrt	2022-05-26	예수 승천일
Pfingstmontag	2022-06-06	성령강림절
Nationalfeiertag	2022-08-01	국경일

Weihnachten

2022-12-25

성탄절 연휴 (12월 26일까지)

<자료원 : 칸톤 취리히 홈페이지 -awa.za.ch>

10. KOTRA 무역관 안내

○ 취리히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Claridenstrasse 22, 8002 Zurich, Switzerland
- 전화번호: +41 44 202 1232
- 팩스: +41 44 202 4318
- 이메일: ktc@kotra.ch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zurich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 기차: Zurich Hauptbahnhof에서 하차(복수 노선 운행) 후 11번 트램으로 Boersenstrasse 하차, 트램 진행 방향을 보고 오른쪽 도로로 도보 3분 이동
 - 트램: 공항에서 10번 트램 탑승, Milchbuch에서 9번으로 환승, Boersenstrasse 하차, 트램 진행 방향을 보고 오른쪽 도로로 도보 3분 이동
 - 택시: 공항에서 일반 택시 이용 시 약 60스위스프랑 예상
- 건물 도착 후
 - 건물 정문 입구 기준 1층의 오른쪽 문 이용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